

2019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학술세미나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보존과 활용

일시 : 2019.9.27(금) 13:30~18:00

장소 :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관

주최 : 문화재청·전라북도·고창군

주관 : 호남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일정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사회 : 한수영(호남문화재연구원)

14:00~14:10 장내정리

주 제 발 표

14:10~14:40	연속유산인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보존에 대한 제언	임경희(국립고궁박물관)
14:40~15:10	고창 고인돌의 구조와 특징	윤호필(상주박물관)
15:10~15:40	고창 고인돌유적의 활용방안 모색 - 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15:40~15:50 휴식

15:50~16:20	영국 거석문화의 연구와 활용	이화종(한양대학교)
16:20~16:50	고창 고인돌유적의 사회적 가치	김태식(연합뉴스)

16:50~17:00 휴식 및 장내정리

17:00~18:00	종합토론	사회 : 이영덕(호남문화재연구원)
-------------	------	--------------------

목 차

연속유산인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보존에 대한 제언 임경희(국립고궁박물관)	7
고창 고인돌의 구조와 특징 윤호필(상주박물관)	27
고창 고인돌 유적의 활용방안 모색 - 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51
영국거석문화의 연구와 활용 이화종(한양대학교)	77
고창 고인돌유적의 사회적 가치 김태식(연합뉴스)	95

1. 연속유산인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유적>
보존에 대한 계언

임경희(국립고궁박물관)

연속유산인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보존에 대한 제언

임경희(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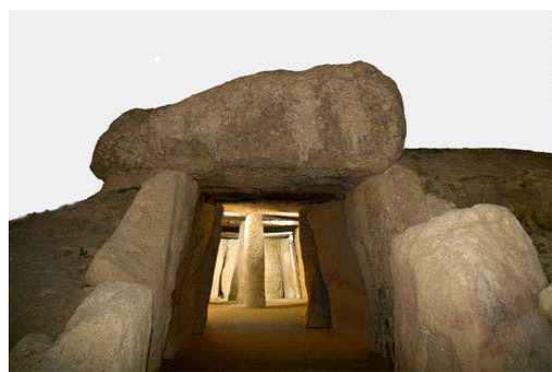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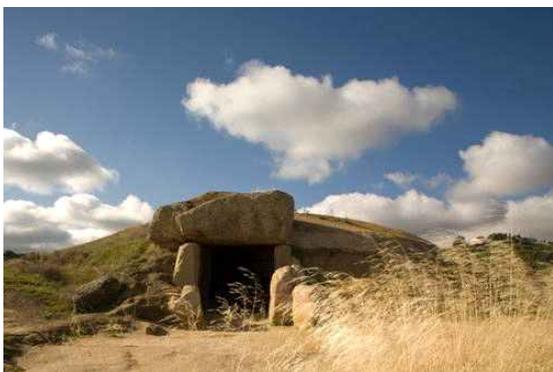
1. 머리말
2.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
3.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기 위한 조건
4.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5. 연속유산인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보존에 대한 제언

1. 머리말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은 2000년 등재된, 우리나라의 7번째 세계유산이다. ‘고인돌(Dolmen)’이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재된 유산으로, 2016년 스페인의 <안티퀘라 고인돌 유적 Antiquerera Dolmens Site>이 등재되기까지도 그랬다.¹⁾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세계유산이 그러하듯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OUV이며, 세계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OUV를 훼손시키지 않고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간략 소개에 이어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의 OUV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어서 OUV를 지속시키는 보존관리 방안을 알아보겠다. 무엇보다도 이 글을 통해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진1. 안티퀘라 고인돌 유적>(출처 : 세계유산센터 <http://whc.unesco.org>)

1) 물론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고인돌’(Dolmen)이라는 명칭으로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유산만 있다.

2.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²⁾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로서, 정확한 명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다.

유네스코의 문화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인류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즉 세계유산이다. 세계유산은 1972년 채택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 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³⁾)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⁴⁾



<그림1. 세계유산 엠블럼>(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위 그림은 세계유산 엠블럼이다. 등재유산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네스코 엠블럼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계유산 엠블럼만 사용할 수 있다. 지구와 인류의 활동을 상징하는 마크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해당 국가의 언어 세 가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3가지 종류가 있다. 기념물, 건조

2) 2장과 3장은 임경희, 2016,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정책과 활용방안」 『역사와 역사교육』33과 임경희, 2017, 「세계유산 등재절차」 『建築』 제61권 09호의 글을 바탕으로 몇몇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3) 세계유산은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의 줄임말이며, 각 당사국의 신청을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목록'에 '등재'된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당사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도에 편입된다는 점을 고려한 용어다.

4) 세계유산에 대한 정의 중 '동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유산'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즉 부동산만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

물론, 유적은 문화유산이라 하며,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는 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은 복합유산이라고 한다. 흔히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유산의 종류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다.

2019년 현재 세계유산은 총 1,121건으로, 이중 문화유산은 869건, 자연유산은 213건, 복합유산은 39건이다. 주변국 등재현황으로는 북한은 <고구려고분군>, <개성역사유적지구> 2건, 일본은 23건(문화 19, 자연4), 중국은 55건(문화37, 자연14, 복합4)을 등재시켰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현재 총 14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3건, 자연유산 1건)이 있다. 1995년 <종묘> <창덕궁> <석굴암과 불국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2000년에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과 <경주역사유적지구>가 목록에 올랐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등재시켰고, 2009년 <조선왕릉>,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과 2019년 <한국의 서원>이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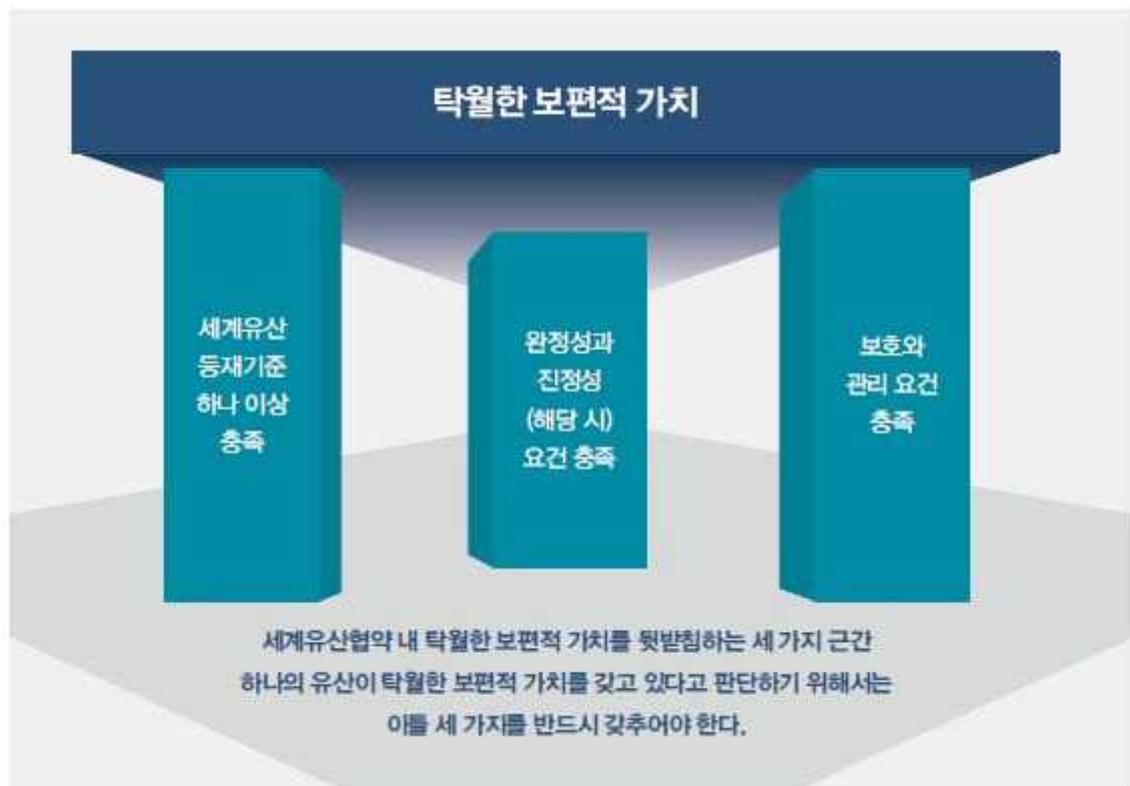


<사진 2.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독일 본) 전경>(출처 : 세계유산센터)

3.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기 위한 조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조건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면 된다. OUV에 대한 정의는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세계유산 운영지침)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 또는 하나의 문화권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즉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체계적 보존관리이다. 세 기준 모두가 갖춰졌을 때만 OUV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만 빠져도 OUV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림 2. OUV의 세 가지 근간>(출처 :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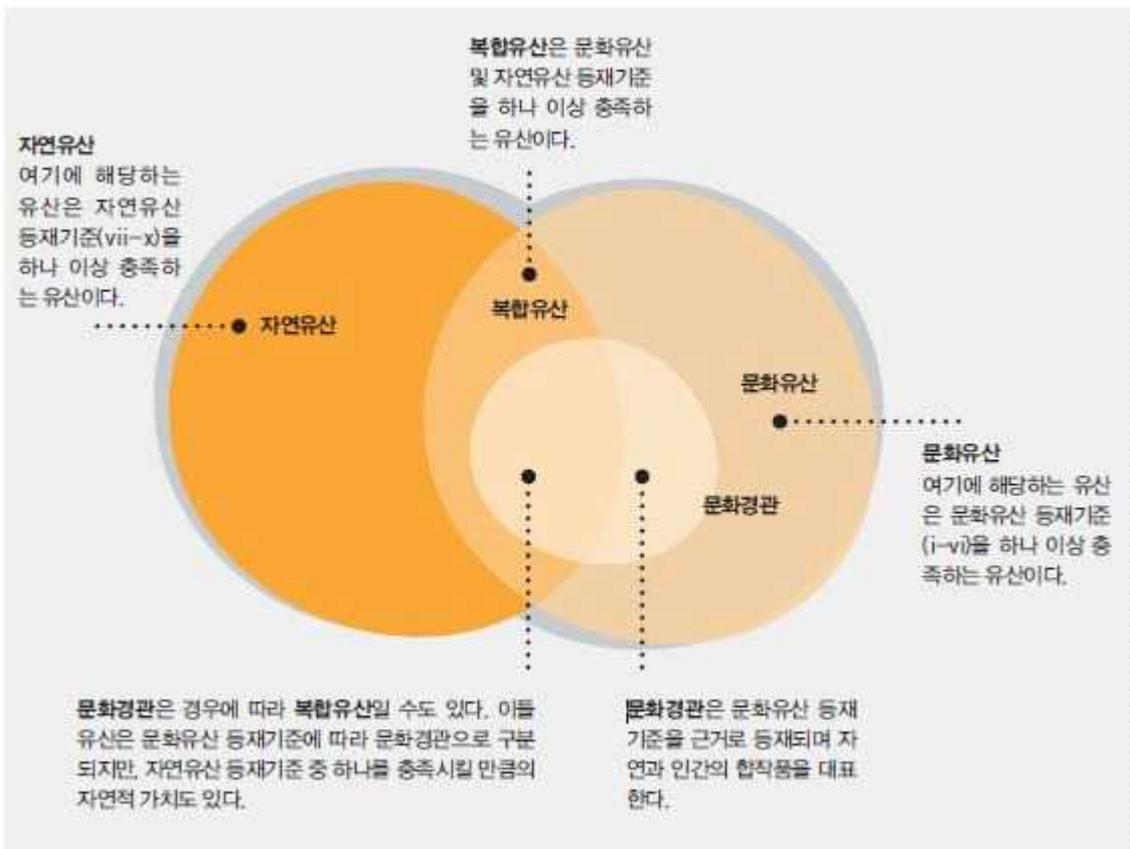
1) 등재기준

OUV의 첫 번째 조건은 등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준은 총 10가지이며, 문화유산은 기준 중 i~vi이 적용되며, 자연유산은 vii~x이 해당된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1개 이상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각 등재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준(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 기준(ii)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중요한 인류적 가치의 교환
- 기준(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의 독보적 또는 특출한 증거
- 기준(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
- 기준(v)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표하는 육지 및 바다의 사용 예증
- 기준(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유산과의 연관성(i~v와 연계된 것을 인정)
- 기준(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 경관
- 기준(viii) 지형 지질 등 지구 역사의 주요한 단계를 입증
- 기준(ix) 진화 및 생태학적 다양성
- 기준(x)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 현장 및 서식지

세계유산 종류(문화, 자연, 복합)와 등재기준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등재기준의 적용>(출처 :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안내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목록 중 등재기준의 충족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연번	유산명	등재연도	등재기준
1	석굴암·불국사	1995	기준 i, 기준 iv
2	해인사 장경판전	1995	기준 iv, 기준 vi
3	종묘	1995	기준 iv
4	창덕궁	1997	기준 ii, 기준 iii, 기준 iv
5	화성	1997	기준 ii, 기준 iii
6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기준 ii, 기준 iii
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	기준 iii
8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기준 vii, 기준 viii
9	조선왕릉	2009	기준 iii, 기준 iv, 기준 vi
1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기준 iii, 기준 iv
11	남한산성	2014	기준 ii, 기준 iv
12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기준 ii, 기준 iii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기준 iii

등재기준이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각 유산별로 생성된 역사적 상황이 상이하고, 현재 남아 있는 형태가 다르고, 가치를 규명하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등재기준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점은 역사적 연원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각 유산별로 가치를 갖지 못하는 유산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인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등재기준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관련 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 세계유산 등재는 기본적으로 이미 제시된 기준 및 제도에 맞춰 움직이는 하나의 ‘행정적·외교적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성공 여부는 유산을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많은 연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등재기준이 쉽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는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등재신청이 되어 왔다. 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다시 등재기준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내부의 가치를 넘어서는, 세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서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서 OUV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연구’이다. 신청유산은 유사 유산과의 비교를 거쳐야 한다. 이때 비교 대상이 반드시 세계유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교 내용에는 해당 유산과 다른 유산의 유사점을 비롯해 해당 유산이 다른 유산

과 구분되는 근거를 개략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국내 및 국제적 관점에서 신청 유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의 가치만 서술하게 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교연구는 유사유산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등재기준에 맞춰 타국의 유산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기준에서 어떤 보편성을 갖는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완전성과 진정성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완전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완전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일체의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유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과 과정이 완벽하게 구현될 만큼 충분한 규모인지, 마지막으로 개발 및 방치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지를 서술해야만 한다.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해당 유산의 물리적 구조 및 중요한 특징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있어야 하며, 퇴락되는 과정은 제어되어야만 한다. 이점은 유산의 보존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생물물리학적 과정과 지형적 특징이 비교적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과 어느 정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통사회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인간 활동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밀렵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에만 해당되는 기준인 진정성은 해당 유산 가치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특성과 이후 과정에서 생성된 특성 및 이들의 의미와 관련해 모든 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유형과 유산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진정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3) 체계적 보존관리

흔히 세계유산 제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등재기준,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개념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등재신청기준 만큼이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존관리계획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계유산은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호해야 할

유산”이라는 점은 놓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OUV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14건의 세계유산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지만, 현재 보존관리에 문제가 있는 유산을 올리는 목록으로 등재단계에서 OUV는 충분하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등재 이후 무분별한 개발이나 전쟁으로 완전성과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유산을 말한다.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올리는 유산은 각 위원국이나 협약 가입국의 공조 속에 보존을 위해 애를 쓰지만, 무분별한 복원, 관광의 차원에서 유산의 훼손 등은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존관리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서는 반드시 해당 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지리적 경계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보호구역은 유산구역(Property Area)과 완충구역(Buffer Zone)으로 구분된다. 구역설정은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표현할 수 있도록 모두 설정되어야 한다.

4.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은 등재조건인 OUV를 충족했다는 인증을 받은 유산이다. 모든 세계유산의 유일한 공식 문건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이다. 현재 등재유산의 경우 등재 결정문에 OUV가 실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는 1978~2006년 사이 등재된 유산에 대해 OUV기술문을 다시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도 여기에 포함되는 유산으로, 2012년 제3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OUV 기술문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한번 결정된 OUV는 변하지 않는다. 문화유산이건 자연유산이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치가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다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OUV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세계유산보호의 기본 조건이다. 세계유산의 OUV는 추가적인 가치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변동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유산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계속된 연구와 새로운 사회 현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치는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제도 내에서 등재시 인정받은 OUV는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또한, 등재를 가능하게 한 가치인 OUV는 당연히 잘 보존되어야 하고, 활용을 포함한 모든 보존 관리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가치, 즉 새롭게 드러난 찾아진 가치 역시 OUV와 조화를 이루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의 OUV는 연구자나 강연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없고, 아래 첨부된 결정문⁵⁾이 바로 그것이다.

간략 진술문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지는 한국과 모든 국가에서도 최고의 밀집도와 최상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고인돌은 기원전 2,000~1,000년에 전 세계의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석 장례 기념물이다. 일반적으로 거대한 덮개돌을 지탱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듬어지지 않은 꺾임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 인물의 시신 또는 유골 위에 세운 단순한 무덤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인돌을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에 조성된 묘역에서 발견된다. 고인돌을 만든 선사시대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적·정치적 시스템과 신앙, 의례, 예술과 의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적이다.

유산은 세 개의 다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8.38ha)은 그 규모와 밀도가 가장 큰 고인돌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여러 구릉의 남쪽 기슭을 따라 매산마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440개가 넘는 고인돌은 기록되어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31ha)는 지석강 주변의 구릉 저부의 산록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500기가 넘는 고인돌이 있다. 이들 고인돌을 만든 석재를 초달한 채석장이 다수 확인되었다. 강화 고인돌 유적지(12.27ha)는 강화의 해안가의 산록에 위치해 있다. 다른 지역의 고인돌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보근리와 고천리의 고인돌은 양식 면에서 시대적으로 앞선다.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지는 채석장에서 어떻게 떼어냈는지, 옮겨졌는지 그리고 들어 올려졌는지, 동북아시아에서 고인돌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의 중요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등재기준 (iii) : 기원전 3,000~2,000년 경 거대한 돌로 축조한 장례 및 의례 기념물(거석 문화)을 등장시킨 전 지구적인 선사시대 기술과 사회현상은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묘역에서 가장 생생하게 확인된다.

완전성

상당한 숫자의 고인돌이 세 지역 각각에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양식과 유형의 수많은 사례들이 거석문화의 발전 역사를 충분히 보여준다. 유적지 인근의 채석장의 존재는 고인돌의 기원과 자연환경, 역사적 발전을 증명하고 있어 특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유산의 완

5) WHC-12/36.COM/8E이며, <https://whc.unesco.org/archive/2012/whc12-36com-8Ee> 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세계유산 관련 문서는 공식언어인 영어와 불어로 만들어진다. 이 글에 제시한 간략진술문은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전성에 기여한다. 이들 구성요소는 모두 등재 유산의 유산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무너지거나 사라진 고인돌은 선택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 이 작업은 고인돌의 원래 배치와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치밀한 과학적 연구에 기초할 것이다. 고인돌의 가장 큰 위험은 화재와 주변 환경의 손상이다.

진정성

고인돌은 형태, 재료와 위치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고인돌은 건립된 그 시기부터 변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고, 그들의 현재 상태는 일반적인 쇠락의 결과이다. 비록 몇몇 고인돌은 농부에 의해서 옮겨진 상태지만, 석재는 손상으로부터 살아남았으며, 원래의 위치와 형태는 어려움 없이 규명이 가능하다.

보호와 관리 요구사항

세 곳의 분리된 유적지의 모든 구역은 보호와 관리를 수반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고인돌 유적지와 각 유적지의 유산구역으로부터 500미터까지 확장된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개발이나 간섭도 허가 절차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며, 수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유적지는 일반 관람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유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유산과 완충구역을 위한 보호, 재원, 보존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종합적인 책임은 문화재청이 지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학술연구, 현장 조사, 발굴조사를 수행한다.(대학박물관과 민간의 문화재연구 기관과도 협업을 한다).

일상 보존과 관리는 관련된 지방정부(고창군, 화순군, 강화군)가 책임지고 있다. 고창고인돌박물관, 화순 고인돌 유적 보호 관리소, 강화역사박물관은 각 고인돌 유적지의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인 일상 모니터링은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모니터링은 3년 또는 4년 주기로 시행된다.

관리계획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적지 안의 세 유산의 관리계획은 개발되어 있다. 관리계획의 일차적인 목표는 고인돌 유적지와 인접 환경의 본래 특성을 보존하는 데 있다. 관리계획은 과학조사(조사, 목록화, 선택적 발굴과 고지형 조사),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잡초의 선별적 제거, 자연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람객 동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근의 농경지 매입 등), 체계적 모니터링, 설명(안내판, 접근 도로와 주차장, 해석 시설, 공공 안내와 지역사회의 참여, 축제와 기타 행사)을 포괄하고 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인돌 주변의 잡목은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토지 굴착 또는 나무 뿌리로 인해서 무너진 고인돌은 조사와 폭넓은 연구를 거쳐 원래 상태로 다시 세웠다.

위 OUV 기술문과 앞의 <그림2>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문명의 증거인 등재기준(iii)이 적용되었다. 거대한 돌로 축조한 장례 및

의례 기념물의 가장 생생한 증거라는 등재기준을 충족했다. 완전성의 요소인 전체성(고인돌, 채석장 등 모든 요소의 포함), 무결성(유산구역 안에서 잘 보존되고 있음)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고, 형태, 재료, 위치 등의 진정성이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보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은 것이다.

4. 연속유산인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보존에 대한 제언

1) OUV에 기반한 보존

등재된 세계유산은 “정기보고”(Periodic Report)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자국의 유산 보존상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⁶⁾ 정기보고는 해당 국가(당사국)가 정해진 틀에 맞춰 직접 점검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국은 세계유산협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OUV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현황도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계유산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매 6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총 2번의 정기보고가 있었다. 2000~2006년 제1차 정기보고, 2008~2015년 제2차 정기보고가 이뤄졌다. 그리고 지금은 2018~2024년에 제3차 정기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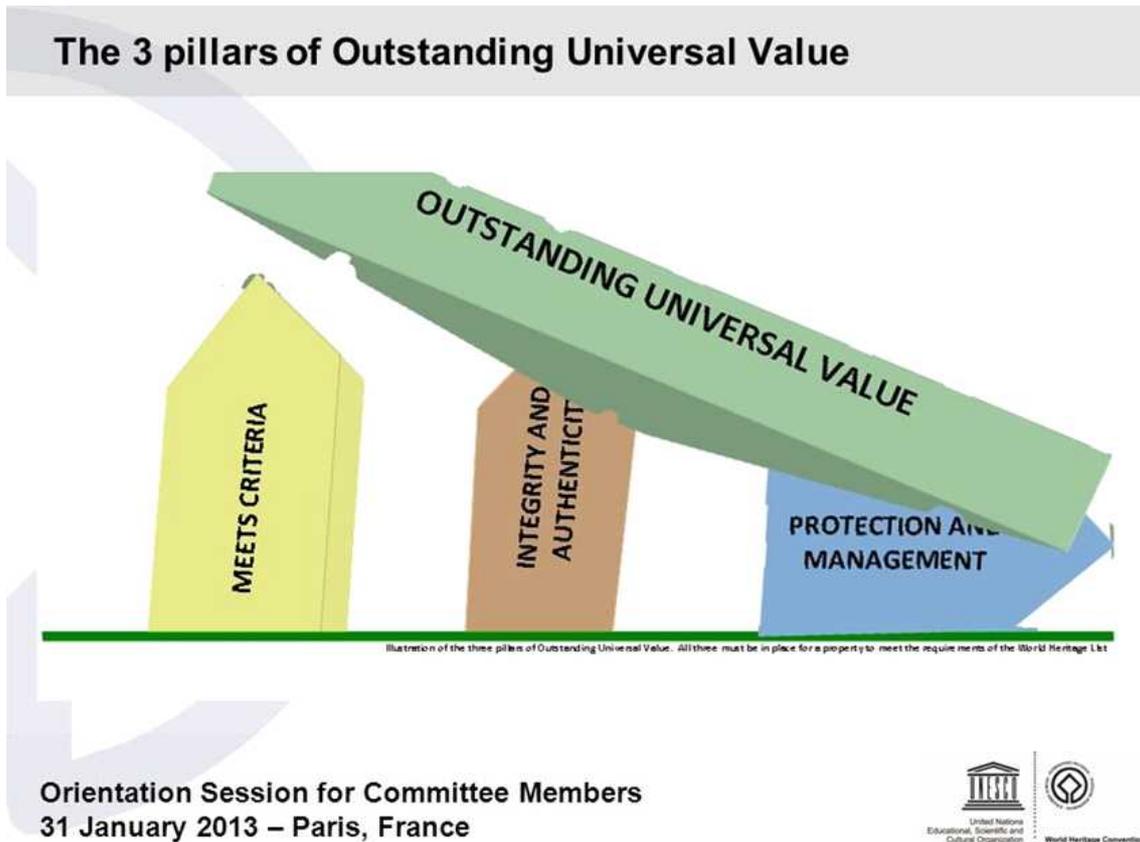
Region	Reporting period	Year of examination of Regional Report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Number of States Parties (as of 2018)
Arab States	2018-2019	2020	18
Africa	2019-2020	2021	35
Asia and Pacific	2020-2021	2022	3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1-2022	2023	28
Europe and North America	2022-2023	2024	50

<그림 4. 제3차 정기보고 일정표>(출처<https://whc.unesco.org/en/periodicreporting/>)

6) 정기보고에 대해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v장에서 모든 절차와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기보고의 내용이기도 하며,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핵심은 OUV의 모든 요소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이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의 OUV 기술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요소를 점검해 보면 된다. 밀집도와 다양성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 그것이 잘 알려져 있는가(활용·홍보). 덮개돌과 꺾임돌이 손상되지 않았는가. 고인돌의 기록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채석장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무너지거나 사라진 고인돌이 다시 세워졌는가. 과학적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 개발이나 간섭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절차와 평가는 잘 행해졌는가. 정기적인 일상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지, 유적지는 일반 관람객에게 충분히 개방되고 있는지. OUV 기술문의 현미경으로 보듯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보존정책이 될 것이다.

흔히들 보존정비를 논하면 가장 먼저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한다. 세계유산에 한정 짓자면 새로운 보존정비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OUV기술문에서 제시한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며 결론이다. OUV 기술문 없이 진행되는 보존 정책은 그야말로 핵심을 놓치고, 겉가지만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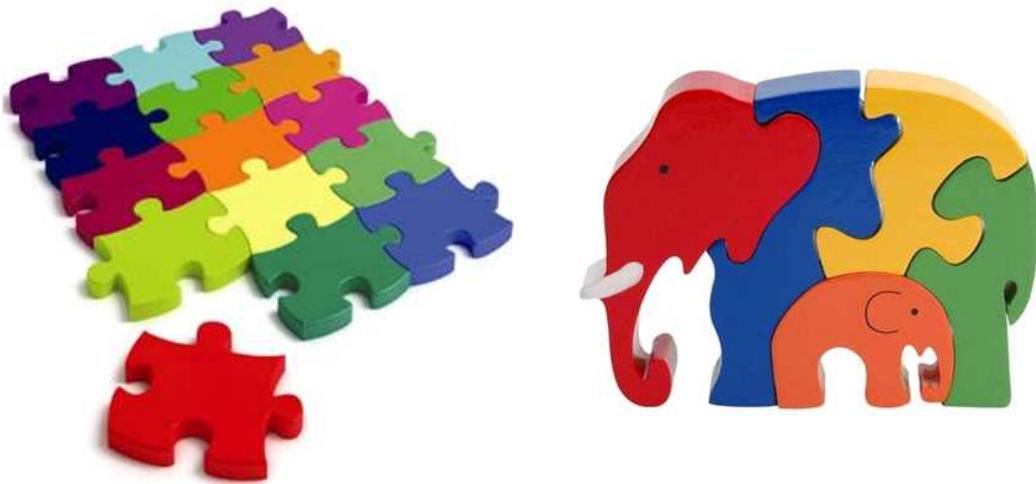


<그림5. 세계유산 OUV의 붕괴> (출처는 그림 안에 표시함)

2) <고창 고인돌 유적> vs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연속유산으로 보존하자

독자들은 이상한 점을 하나 느낄 것이다. 필자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왜 그러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고창 고인돌유적>이라는 세계유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다.

이 유산은 단일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고창 고인돌유적’은 앞 유산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 독립된 유산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고창 고인돌 유적’이 없는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유적>의 존재는 가능한가? 이 역시 불가능하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가 요구되는 유산”을 연속유산이라고 정의할 때⁷⁾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가 없으면 OUV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요소는 넣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림 6. 연속유산에서 구성요소의 역할>(출처: Eugene Jo(ICCROM PC)의 PPT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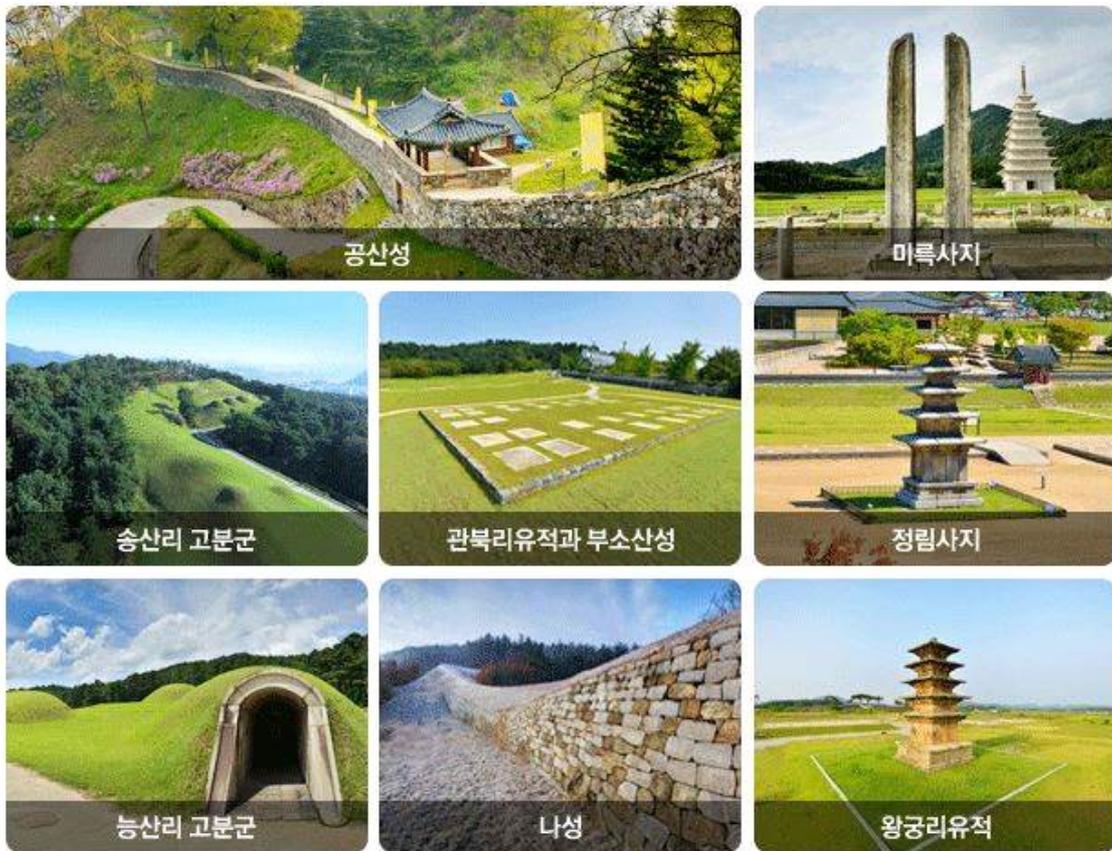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퍼즐 하나가 빠지면 사각형이 형성되지 않거나, 코끼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 블록에서 노란 색 하나가 빠지면 코끼리가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빠져나온 노란색 블록만으로는 코끼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연속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증폭과 함께 각 국은 등재를 위해 치열하게

7) IUCN·BfN-Skripten, 2009, 『Nominations and Management of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 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5

8) 위 그림은 현재 ICCROM에서 World Heritage Leadership Program의 담당자인 Eujene Jo의 강의 피피티에서 가져온 것으로, 필자가 직접 허락을 받아 여기에 사용했다.

노력한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는 연속유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2019년)이 모두 연속유산이다. 2000년 등재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과 달리 최근의 연속유산은 반드시 “통합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각각 경계를 달리하고 있는 유산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통합하는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설립되었고, 산사와 서원의 경우에는 현재 통합관리를 위해 기구 설립이 준비 중이다.



〈자료출처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사업단〉

<그림7.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출처: 그림에 표기)

그렇다면 연속유산인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은 어떠한가? 등재당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창과 화순, 강화가 각각 보존관리와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도 한다. 과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은 어느 속담이 더 적합할까. 우리 고인돌 유적의 가장 큰 특징은 밀집도와 다양성이다. 고창은 규모와 밀도에서, 화순은 수량과 채석장에서, 강화는 위치와 양식적인 면에서 OUV를 대표하고 있다. 각각이 별

개로 보존되고 활용되는 것보다는 함께 했을 때 파급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즉답으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품질의 문화콘텐츠 보유를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세 지역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를 백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어렵고 대단한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알리는 방법부터 변화하자. 고창 고인돌박물관 누리집의 소개 및 연혁 부분에는 “2000. 12. 02. 고창고인돌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고인돌 447기”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를 “2000. 12. 02. 고창의 고인돌 447기 포함된 <고창·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바꾸자. 연속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센터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물이 책자로 발간되어 있다. 연속유산의 해석과 홍보(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활용이다)는 어떻게 다뤄져야하는가라는 논의는 “연속유산은 모든 유산에 대해서 다른 구성요소에서도 반드시 소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⁹⁾ 즉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세계유산으로 소개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고창’만이 아니라 ‘강화’와 ‘화순’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고창이 먼저 시작하면, 강화와 화순이 같이 하지 않겠는가. 안한다면 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 더 나가자면, <고창·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필자가 발견하지 못한 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 고창고인돌박물관의 선사체험, 화순 동북아지석묘연구소의 여러 활용프로그램들, 강화고인돌 선사체험학교 등 일반 관람객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안내만 해줘도 된다. 직접 운영 주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통합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공급자는 차별화와 내실을 기할 것이고 수요자(관람객)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관심이 커지는거 아니겠는가.

앞 절에서 설명한 ‘정기보고’ 역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정기보고는 문화재청이 직접 작성하는 Section 1과 해당 지자체가 작성하는 Section 2로 나뉘지는데, 개별적인 보존관리에만 치중하다보면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고창·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 전체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나 산사와 서원처럼 통합관리단체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각 지자체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구의 출현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현재 상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을 찾아서 현실화 시키

9) IUCN · BfN-Skripten, 2009, 『Nominations and Management of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 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11

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고창·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첫째 OUV에 기반한 보존 둘째 연속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제안했다. 필자의 제안이 <고창·강화·화순의 고인돌 유적> 보존과 유산 가치 증진에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http://whc.unesco.org/>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고창고인돌박물관 <http://www.gochang.go.kr/gcdolmen/index.gochang>

동북아지석묘연구소 <http://www.idolmen.or.kr/>

강화역사박물관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1999, 『WORLD HERITAGE LIST APPLICATION Ko'chang, Hwasun, and Kanghwa Dolmen Sites』

문화재청, 2000, 『고창, 강화, 화순 고인돌 유적 세계유산등재신청서』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채택)

UNESCO•WHC, 2017,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7년 개정판)

문화재청, 2017,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

UNESCO•ICCROM•ICOMOS•IUCN, 2011,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 (Second edition)

문화재청, 2018,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위의 이행지침과 등재신청 안내서에 대한 국문번역본의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번역본으로, 본 글에 사용하는 모든 용어는 이에 근거하였다.)

UNESCO•ICCROM•ICOMOS•IUCN, 2011,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Second edition, 2011)

IUCN · BfN-Skripten, 2009, 『Nominations and Management of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World Heritage and serial properties and nominations』 February 2010, Ittingen, Switzerland)

임경희, 2016,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정책과 활용방안」 『역사와 역사교육』 33

임경희, 2017, 「세계유산 등재절차」 『建築』 제61권 09호

임경희, 2019,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제4기 조선왕릉아카데미』

2. 고창 고인돌의 구조와 특징

윤호필(상주박물관)

고창 고인들의 구조와 특징

윤호필(상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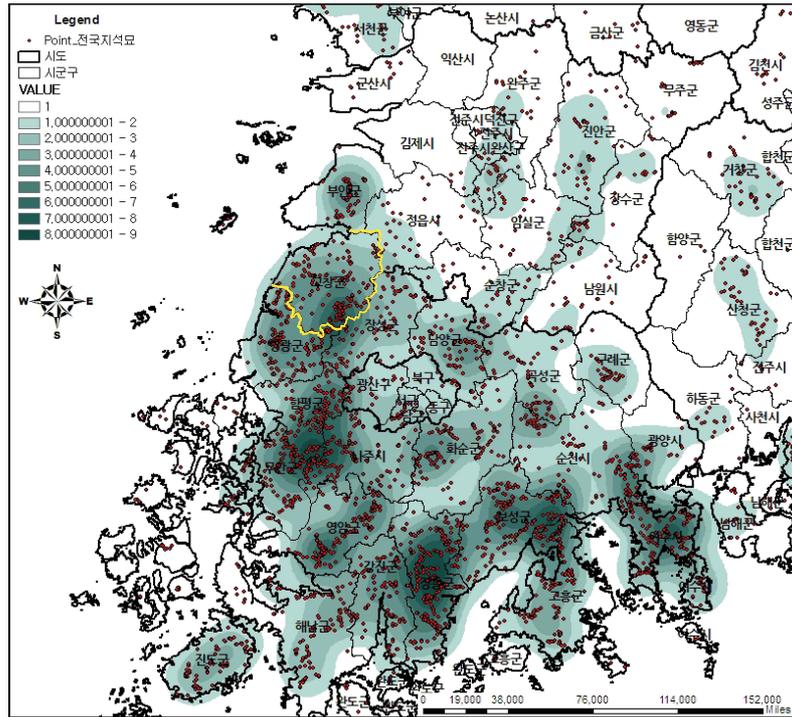
<p>목차</p> <p>1. 머리말</p> <p>2. 고창 고인들의 분포와 입지</p> <p> 1) 분포</p> <p> 2) 입지와 배치</p> <p>3. 고창 고인들의 형식과 구조</p> <p> 1) 형식</p> <p> (1) 고인들의 형식분류</p> <p> (2) 고창 고인들의 형식과 특징</p> <p> 2) 구조</p> <p> (1) 고인들의 세부구조</p> <p> (2) 고창 고인들의 구조적 특징</p> <p>4. 맺음말</p>

1. 머리말

고인돌(支石墓)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거석문화(巨石文化)의 한 종류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분묘 양식이다. 고인돌은 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는 분묘로서 독특한 외형적 특징을 가지며, 이는 신석기시대 분묘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구조이다. 또한, 축조과정에서 다양한 장송의례도 행해진다. 따라서 고인들의 밀집분포 양상과 외형적 특징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분묘문화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즉, 거석(巨石)을 분묘로 채택한 당시의 사상적(思想的)인 측면, 상석을 채석해서 옮기는 데 따른 경제적(經濟的)·정치적(政治的)인 측면, 분묘에 묻힌 피장자의 사회적(社會的)인 측면, 유물을 통한 문화적(文化的)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동기시대 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영문 1993:2).

한반도는 세계적인 고인돌 밀집지역으로 남한과 북한을 합쳐 약 4만기 정도가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회과학원 2002, 한국상고사학회 2003). 전북지역은 2003년 조사 기준으로 424개 군집에 2,632기가 분포하며, 고창군은 이중 63.6%를 차지하는 205개 군집에 1,656기가 분포한다¹⁰⁾. 그중에서도 최대 밀집 분포지역은 고창군 죽림리 고인돌군으로 약 481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고인돌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가 확인되었다¹¹⁾. 이러한 고창지역 고인돌 현황은 대부분 지표조사(전북대학교 박물관 1984, 김선기 2003,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군산대학교박물관 2009)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시·발굴 조사는 일부 지역에서만 매우 적게 시행되었다.



<그림 1> 호남지역 고인돌 분포도(강동석, 2011에서 수정 인용)

따라서 고인돌의 분포양상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형태와 구조, 출토유물 등 세부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나 연구가 많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발표문은 기 조사자료와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고창지역 고인돌의 분포와 입지, 형식과 구조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고창 고인돌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고창 고인돌의 분포와 입지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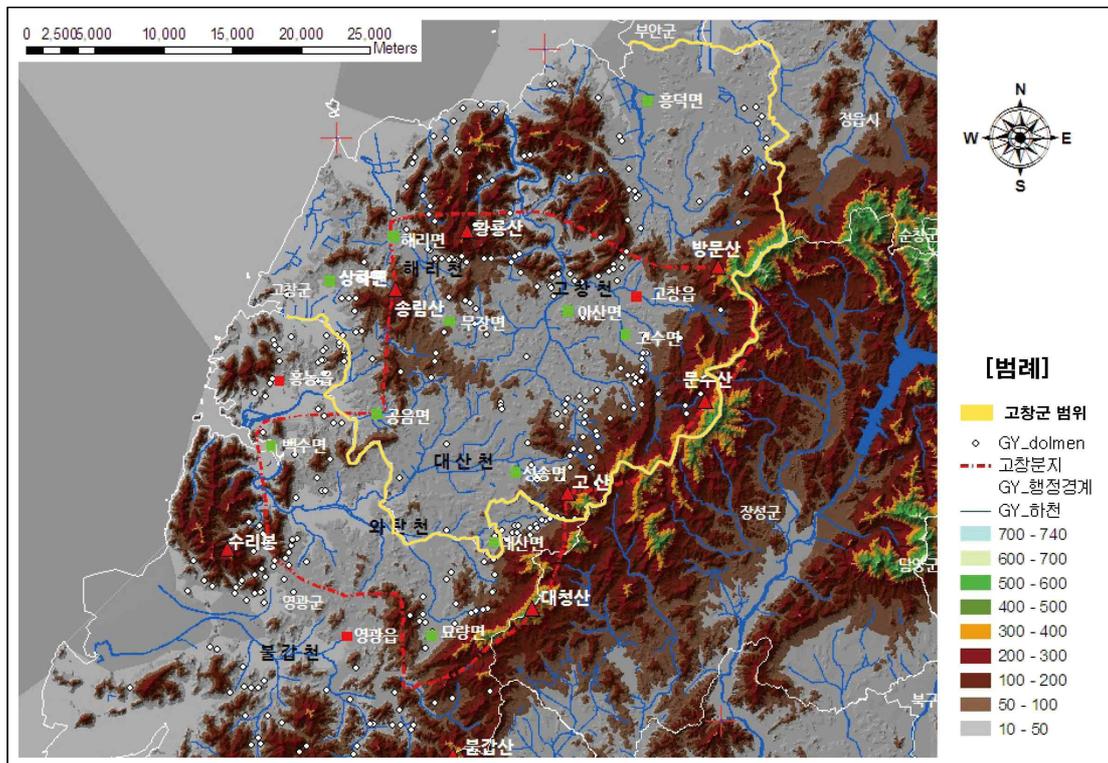
1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高敞郡-』, 高敞郡.

11)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고창지석묘군 →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으로 명칭변경(2011.07.28.고시)]은 2000년 12월 2일 화순, 강화 고인돌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997호로 등록되었다.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에 분포하는 고인돌 수는 1990년 처음 전체 현황조사(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0)에서는 2개 지구 10개 군에서 '442기'가 확인되었으나, 이후 도산리 5기가 추가되고, 2000년 실시한 현황조사(호남문화재연구원 2001)에서는 추가로 송암 3개 군에서 34기가 출토하여 총 481기 확인되었다.

12) 고창지역 고인돌의 분포와 입지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현황 분석은 잘 이루어져 있으며(군산대학교박물관 2009), 나아가 GIS를 활용한 분석(강동석 2011)이나 BPE법 중 L-rod법을 사용한 분석(조기호·이병렬 2003)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분석도 있다. 따라서 분포와 입지는 기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분포

고창군은 동북쪽으로 정읍시, 동남쪽은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남도 장성군, 남쪽은 전라남도 영광군, 서쪽은 황해, 북쪽은 줄포만을 사이에 두고 부안군과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607.69km²이다. 고창군 일대는 지형적으로 영광군과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령산지와 서해안 인근 산지들로 둘러싸여 분지의 형태를 하고 있다(김하정 2005)¹³⁾. 주요하천은 크게 해리천, 고창천, 대산천, 와탄천, 불갑천 등이 있다. 먼저 가장 큰 하천인 고창천은 노령산맥 북사면에서 발원하여 분지 북부의 곡부를 따라 흘러 줄포만으로 유입되는데, 중류지역에는 규모가 가장 큰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이 위치한다. 대산천은 발원지 주변으로 암치리 고인돌군, 계당리·향산리 고인돌군 등이 위치하며, 와탄천은 고창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상금리 고인돌군이 분포한다. 북서부에 위치한 해리천은 비교적 소규모 하천으로 발원지 주변에 고인돌군이 밀집해 있다. 이처럼 고창분지 내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발달해 있으며, 고인돌은 이러한 하천 주변에 위치하면서 상호 관련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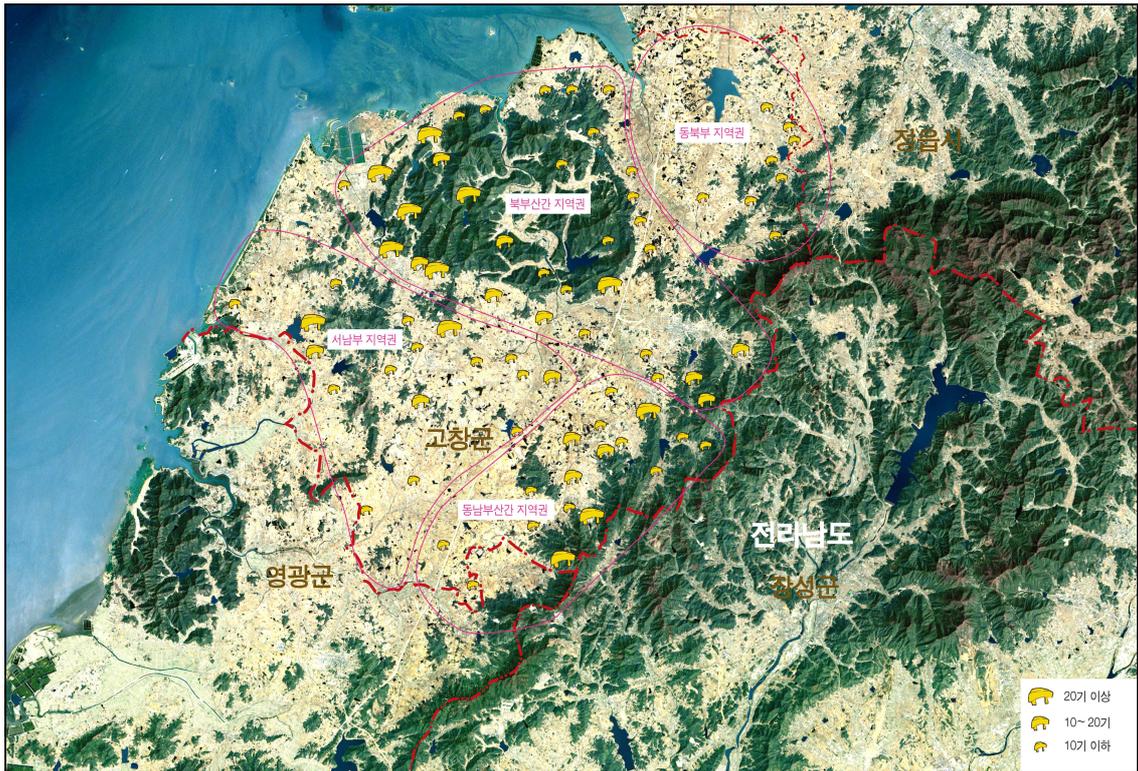


<그림 2> 고창지역 고인돌 분포 및 고창 분지의 범위(강동석, 2011에서 수정 인용)

고창군은 지형 및 지리적 특성상 4개의 지역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고창군·군산

13) 고창군의 분지지형은 지형적으로 영광군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지역권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를 경우 고인돌의 분포는 316개 군집에 2,128기가 분포한다(강동석 2011:10).

대학교박물관, 2009, <그림 3> 참조), 이들 지역권의 지형·하천 양상과 고인들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고창군 고인돌 분포도(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 2009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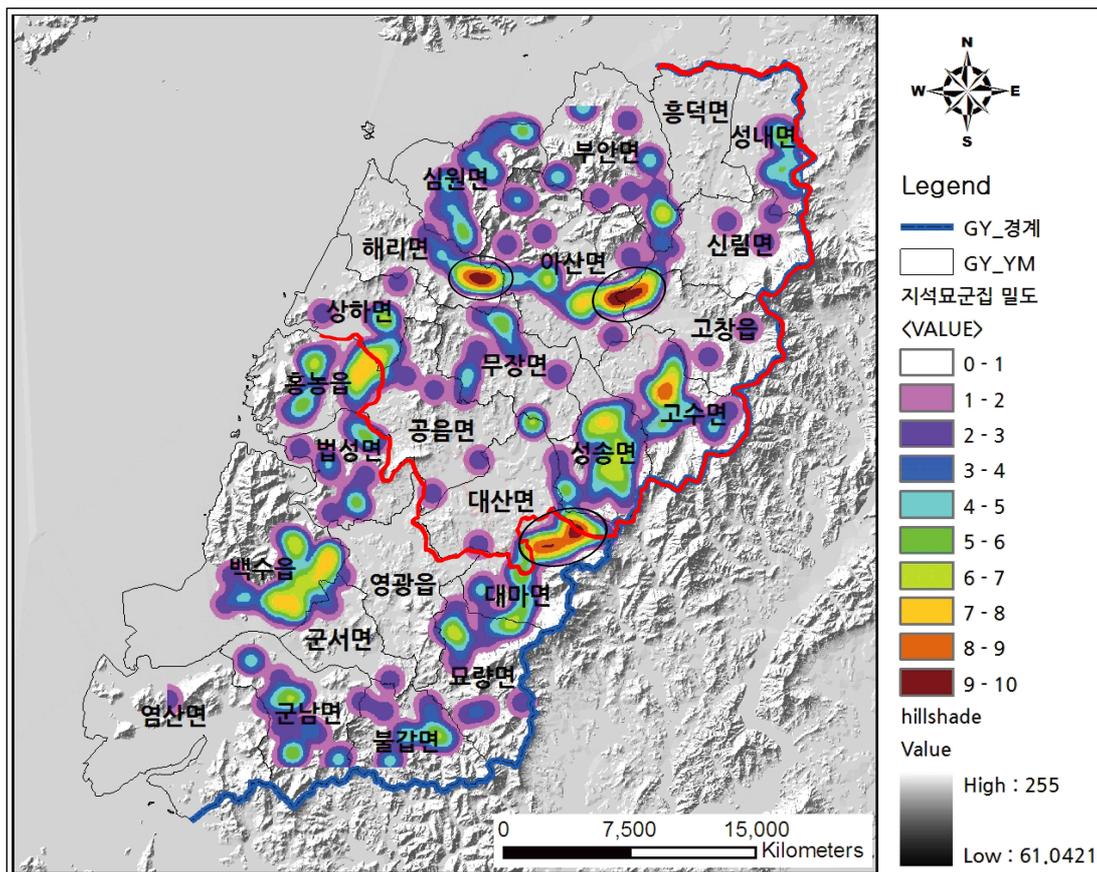
첫째, 동북부지역권은 성내면·흥덕면·신림면이 속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평지형을 이룬다. 북서쪽은 서해안인 곰소만과 위치하며, 북동쪽은 평지, 서쪽은 갈곡천을 중심으로 한 넓은 충적평야, 동쪽은 해발 20~5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이 분포한다. 고인돌은 80여 기 확인되며, 주로 부안면에 분포한다. 흥덕면에서는 고인돌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권에 고인돌들은 대체로 해발 20~60m 내외의 낮은 구릉지대나 소하천 주변에 단독군집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한 군집에 10기 이내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어 밀집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둘째, 북부산간지역권은 고창읍·아산면·해리면·심원면·부안면이 속한 지역으로 남동쪽의 방장산(해발 744.1m)에서 북서쪽의 선운산(해발 336m)까지 구릉이 이어진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이 구릉지역에 속하며, 일부 평지가 포함된다. 구릉지역은 곡부를 따라 소하천이 발달하였으며, 이들 소하천은 주진천과 연결되어 구릉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곰소만으로 유입된다. 고인돌은 대부분이 하천을 끼고 있는 구릉 사면의 말단부나 개활지, 산간지대의 곡부를 따라 길게 분포한다. 특히 서해로

흐르는 고성천, 주진천, 담암천의 주변에 형성된 충적지에 입지하는 고인돌은 반경 5km 범위 내에 약 100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한다.

셋째, 동남부산간지역권은 고수면·성송면·대산면이 속한 지역으로 대부분 구릉지대이며 일부 평지가 포함된다. 이들 구릉은 호남정맥의 주 능선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가지 능선이다. 고인돌은 약 460여 기의 고인돌이 확인된다. 특히 고수면 부곡리 일원과 성송면 암치리·계당리·향산리 일원은 반경 5km 이내에 1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으며, 개별 군집간 거리도 2km 내외로 매우 짧다.

넷째, 서남부지역권은 상하면·무장면·공음면에 속한 지역으로 중앙부에 위치한 장사산(해발 269.6m), 송림산(해발 295.3m)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발 20~6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다. 북서쪽은 서해안과 접해있다. 고인돌은 129기가 확인되며, 대부분이 해리면과 무장면·상하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발 250m 내외의 구릉지 주변에 분포한다. 즉 무장면 교흥리와 신촌리, 상하면 용대리·하장리 일원에는 30 여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1~4기의 고인돌이 단독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4> 고창지역 고인돌의 밀도 분석도(강동석, 2011에서 수정 인용)

전체적으로 보면 고창군 고인들의 약 80%가 북부산간지역권의 남쪽 경사면과 동남부산간지역권의 서쪽 경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대 밀집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읍 죽림리, 도산리 일원과 대산면 상금리 일원으로 200여기 이상의 고인들이 밀집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창지역은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고인돌 분포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최대 밀집지역인 전라남도과 연결해 있어 지형이나 지역적으로는 하나의 넓은 지원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지역에는 고인들의 분포가 급격히 감소하고, 서해안과 가까운 지역인 저평한 구릉지대도 고인들의 분포가 미미한 것은 이들 지역이 주로 황토지대로 이루어져 고인돌 축조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라북도지역의 청동기시대인들의 주 생활권이 하천의 상류 주변이나 산간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선기 2003:70).

2) 입지와 배치

고인돌은 기본적으로 시신을 매장하는 무덤으로서 마을의 공동묘지이다. 따라서 취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취락의 위치에 따라 고인들의 입지가 주로 결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입지양상은 크게 평지, 구릉, 산기슭, 고개마루 등으로 다양한 곳에 입지한다(이영문 1993:44). 이들 입지는 기본적으로 무덤의 재료인 바위나 석재를 구하기 쉽고, 교통과 농경지 확보가 유리한 곳에 주로 확인된다.

고창지역 고인돌은 기본적인 모든 입지양상에서 확인되지만, 주로 하천을 끼고 있는 구릉사면의 하단부나 개활지에서 주로 입지하며, 교통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징은 고창지역이 분지지형으로 지형적 특징이 고인돌 구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인들의 입지가 취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나 재화의 교환 등의 물리적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교통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교통로를 통해 대내외적 위세품(혹은 의례품)생산과 유통체계에 대한 통제권 장악은 초기복합사회 수장층의 사회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로 사용된다고 볼 때(김범철 2010:16), 고인들이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것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지지형은 지형 및 지리적으로 보면 고립된 형태로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통로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인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고창지역에서 가장 중심 고인돌인 죽림리 고인돌군의 경우 고창 분지의

북부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지 내에서 가장 발달한 고창천에 인접해 있어 교통망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해리 고인돌군도 인접한 해리천이 서북부 지역을 관통하여 부안과 연접한 곰소만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가지고 있으며, 대신 고인돌군도 장성군과 통하는 고개길 루트상에 위치한다. 이렇듯 중심 고인돌군들은 밀집도와 더불어 입지적 우월성도 확보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고인돌 배치는 크게 열상배치와 군상배치로 구분되며, 입지하는 지형양상(묘구의 공간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창지역 고인돌군에서도 열상배치와 군상배치가 모두 확인되지만 주로 열상배치가 확인된다.

3. 고창 고인들의 형식과 구조

1) 형식

(1) 고인들의 형식분류

고인돌은 상석, 지석(묘역), 매장주체부의 3요소를 가지며, 이러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나누어진다. 고인들의 형식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시도되고 있다. 외형적인 형태에 따라 분류한 방법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탁자식(北方式), 기반식(南方式), 개석식(無支石式)으로 나누는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72). 하지만 이러한 분류기준은 외형적인 형태만을 빌린 분류법으로 무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매장의 기능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즉, 무덤은 피장자를 어디에 묻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전통성)이자 무덤의 중요 기능인 ‘시신 보관방법의 문제’(무덤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인들의 분류방법도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기본전제로 하고, 나머지 제 속성들에 따른 세분화된 분류방법이 필요하다. 세부속성은 상석⇒묘역⇒매장주체부의 순으로 분류한다.

형식분류는 먼저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따라 지상식(I형)과 지하식(II형)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속성에 따라 세분하기로 한다. 지상식 고인돌(I형)은 탁자식 고인돌(IA형), 위석식 고인돌(IB형), 분구식 고인돌(IC형)으로 구분되며, 지하식 고인돌(II형)은 기반식 고인돌(IIA형)과 개석식 고인돌(IIB형)로 구분된다. 나머지는 매장주체부의 형태에 따라 석축석관(1형), 상형석관(2형), 목관(3형), 토광(4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매장주체부는 분류된 4가지 외에 ‘판석과 목재’가 혼합된 형태도 일부 확인되었는데,¹⁴⁾ 아직 출토 예가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류기준에

14) 진주 평거 3-1지구유적, 김해 율하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서는 제외하였다.

<표 1> 고인들의 형식분류

매장주체부의 위치⇒	지상식(I형)			지하식고인돌(II형)				
고인들의 형태 (지석의 유무) ⇒	탁자형식 (IA형)	위석형 (IB형)	분구식 (IC형)	기반형고인돌 (IIA형)	개석형고인돌 (IIB형)			
묘역의 유무⇒	묘역 설치(a형)	묘역 미설치(b형)		묘역 설치(a형)	묘역 미설치(b형)			
매장주체부의 형태⇒	석축석관 (1형)	상형석관 (2형)	목관 (3형)	토광 (4형)	석축석관 (1형)	상형석관 (2형)	목관 (3형)	토광 (4형)

<표 2> 지상식 고인돌 종류 및 특징

구분	탁자식 고인돌	위석식 고인돌	분구식 고인돌
내용	지상에 판석 3~4매로 석관을 만들고 그 위에 상석을 올린 후, 시신을 매장하고 마구리돌로 입구를 막았다.	상석아래에 할석이나 판석을 여러 매 돌려놓은 형태.	지상에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할석이나 흙을 쌓아 분구형태로 만들고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고 상부에 상석을 올린 형태이다.

<표 3> 지하식 고인돌 종류 및 특징

구분	기반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
내용	매장주체부는 지하에 무덤을 축조하고 지상에는 지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상석을 올린 형태	매장주체부는 지하에 무덤을 축조하고 지상에는 상석을 올려놓은 형태

(2) 고창 고인돌 형식과 특징

고창지역 고인돌은 <표 1>의 고인돌 형식분류에서 제시된 것 중 ‘분구식 고인돌’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형식의 고인돌이 확인된다¹⁵⁾. 이중 지상식 고인돌에 대해서 김선기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석부가탁자식, 지상석곽식, 지석부가지상석곽식 등으로 나누었다. 이중 지석부가탁자식은 탁자식의 기본구조에 주형지석이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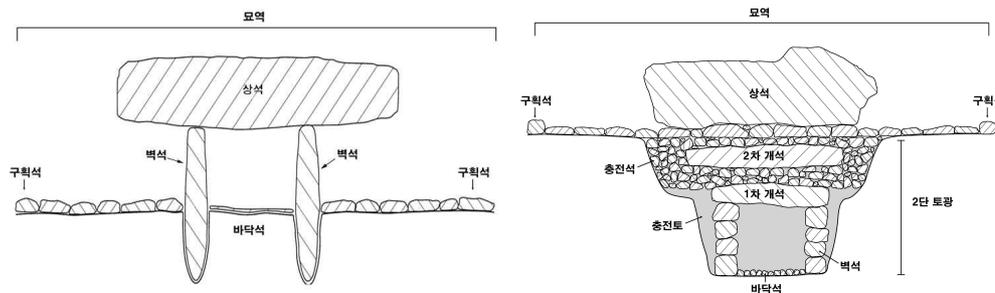
15) 본 발표문의 형식분류와 구조는 “고창군의 고인돌” 보고서(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 2009)와 “전북 지방 지석묘의 현황과 고창지석묘의 특징”(김선기 2003)의 논고를 정리하고 보완한 내용이다. 고인돌의 기본 검토 수량과 내용은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였다. 확인된 고인돌은 1,119기이며, 이중 형태와 구조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708기이다.

된 형식으로 기존의 탁자식 지석묘의 변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식은 죽림리 2428호가 유일한 예이다. 지상석곽식은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형태이며(김선기 204:72), 전라남도에서는 영광지역에 일부 확인된다. 형태는 대체로 장벽에 2매 이상의 판석을 세운 순수한 지상석곽식과 여기에 주형지석을 부가하여 보완한 지석부가지상석곽식이 있다. 이러한 형태와 구조의 고인돌은 기본적으로 지상식 계통의 위석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것은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위치하며, 상석 밑에 돌을 돌려 매장주체부를 축조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형태와 구조의 고인돌이 고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구조

(1) 고인들의 세부구조

고인들의 구조는 크게 상석, 지석, 묘역, 묘광, 충전석(충전토), 개석, 매장주체부(석축석관, 상형석관, 목관, 토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세부 속성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지석묘 구조[좌:탁자식고인돌(지상식), 우:개석식 묘역고인돌(지하식)]

상석은 고인들의 구조적 특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상석이 설치됨으로써 고인돌이 완성된다. 단면형태에 따라 괴석형, 장타원형, 장방형, 판석형으로 구분되며, 상석은 다양한 형태로 채용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거대화화 간략화이다. 이는 서로 상반되는 경향성으로 묘역의 적극적인 채용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청동기시대 중기로 갈수록 묘역의 설치가 증가하고 묘표적 기능과 제단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석의 규모가 간략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상석규모의 확대와 묘역의 확대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고인돌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에서 묘역을 채용한 고인돌일 경우는 상석이 상대적으로 간략화 된다. 극대화된 묘역은 묘역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묘구를 정지하는 토목공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위계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석은 상석을 받치는 돌로서 묘역시설과 같이 상석과 매장주체부를 분리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석의 유무에 따라 기반식 고인돌(지석이 있을 경우)와 개석식 고인돌(지석이 없을 경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무덤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역할도 한다. 지석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주형지석, 대형지석, 소형지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묘역은 상석 아래에 일정 범위에 할석, 천석, 판석 등을 쌓거나 깔은 시설물로, 상석의 무게를 분산시켜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과 무덤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무덤을 알리는 묘표적 기능인 상징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평면형태는 크게 장방형계와 타원형계로 구분되며, 이중 장방형계의 묘역이 더 많이 확인된다. 묘역은 기본적으로 균집을 이루면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타원형계보다는 장방형계의 연결경향이 두드러진다. 묘역시설은 매장주체부의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되며, 이중 석축석관에 더 많이 설치된다. 묘역의 평면적은 일반적인 규모와 극대화된 규모가 뚜렷이 구분된다. 묘역의 연결형태도 주로 일반적인 규모의 묘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극대화된 묘역은 독립적인 위치에 배치되는 경향이다. 묘역의 구획석은 할석이나 소형판석을 쌓아서 구획한 것과 판석을 세워서 구획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중 극대화된 묘역에는 쌓아서 구획한 것이 주로 확인된다. 특히, 창원 덕천리유적 1호, 마산 진동유적 E-1호, 진주 가호동유적 1호에서 확인된 구획석처럼 ‘들여쌓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많아 축조방법에서도 연관성을 보인다. 또한 묘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구가 설치된 것도 연관성을 가진다.

묘광은 매장주체부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토광벽은 1단묘광과 다단묘광으로 축조되며, 다단묘광은 주로 2단과 3단이 대부분이다. 다단묘광은 매장주체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채택된다. 다단굴광 축조기법은 규모가 작은 것에서도 확인되나 기본적으로는 규모가 큰 묘광을 축조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단묘광의 설치 목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신을 보다 깊은 곳에 안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둘째, 묘광을 넓게 축조하여 묘역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셋째, 묘광 내에서 목관이나 시신의 안치를 위해 사용된다. 첫 번째는 묘광을 깊게 축조할 때 다단굴광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여러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축조방법은 굴착하는 과정에서 단을 지어 굴착면적을 점점 좁혀 나가는 것으로 작업의 능률면에서나 작업과정의 안전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¹⁶⁾ 하지만 깊이 굴착된 묘광은 매장주체부와 지면 사이의 공간이 커져 이를 채

16) 묘광의 축조는 기본적으로 매장주체부나 시신이 안치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을 수 있는 축조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단굴광을 통해 묘광을 깊게 굴착하는 방법은 그 내부공간을 채우는 축조방법까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즉, 다중개석과 충전석, 충전토를 이용하여 매장주체부의 상부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¹⁷⁾ 둘째는 묘광의 기능을 확대하여 묘역의 기능까지 추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대형의 고인돌에서 묘광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즉, 묘역시설처럼 지상에 일정범위를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묘광 조성 과정에서 일정한 넓은 범위를 굴착하여 묘역처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에 굴착된 묘광과 하부의 묘광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셋째는 묘광 내에 목관이나 시신이 안치될 공간을 따로 굴착해서 만드는 것으로 주로 목관묘나 토광묘에서 사용한다. 즉, 묘광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단을 지어 목관이나 시신이 안치되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충전토와 충전석은 묘광에 설치된 매장주체부의 외곽을 채우거나 묘광의 빈 공간을 채울 때 사용하는 흙과 돌을 말한다. 충전토와 충전석은 기본적으로 매장주체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묘광을 채워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묘광을 채움으로써 매장주체부를 고정시키고 내부를 밀폐시키는 역할이다.

개석은 기본적으로는 매장주체부의 상부를 덮어 외부로부터 피장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다중개석일 경우는 개석이 상하로 붙어있는 경우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붙어있을 경우는 2차 개석이 1차 개석의 사이에 위치하여 최대한 밀폐시키며, 떨어진 경우에는 개석과 개석사이를 충전토나 충전석으로 채운다. 기본적으로는 무덤이나 매장주체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확인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무덤 형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무덤형식 중 가장 많이 채용하는 것은 고인돌이다. 이러한 양상은 고인돌의 규모가 다른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구조가 다양하며 묘광의 깊이도 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매장주체부는 시신 및 부장유물의 보호가 가장 큰 목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규모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묘광규모와 매장주체부 규모가 비례적으로 연동하지는 않는다. 고인들의 매장주체부 종류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석축석관, 상형석관, 목관, 토광 등이 사용되었다. 최근 특이한 구조의 매장주체부 형태로써 돌과 나무를 함께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해 하나의 형식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그에 따른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따라서 최하부의 공간은 시신을 기준으로 한 일정 공간만이 필요할 뿐으로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처음부터 좁게 굴착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업공간의 부족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깊게 굴착된 묘광은 묘광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정 깊이에서는 단을 지어 굴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17) 발표자는 다중개석의 발생이 이러한 무덤구조의 등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尹昊弼, 2005).

<표 4> 지식묘의 세부속성 및 특징

세부속성	특 징
상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석묘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 ·규모와 형태의 다양성 → 거대화화 간략화 ·외형적 형태에 따른 구분 : 괴석형, 장타원형, 장방형, 판석형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표적 기능, 제단적 기능, 표지적 기능(교통로, 경계, 특수공간) ·채석 → 발달된 석재가공기술, 석재 전문장인 등장 ·운반과정에서 집단적 노동력 필요.
지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석을 받치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석을 돋보이게 함. 상석과 매장주체부를 분리(매장주체부 보호) ·지석 有無 → 기반식지석묘(지석 갖춤), 개석식지석묘(지석 없음) ·크기와 형태에 따른 구분 : 주형지석, 대형지석, 소형지석 <p style="text-align: center;"><탁자식지석묘와 위석식지석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석아래에 매장주체부를 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벽석이 지석 역할을 함. ·탁자식 : 4매의 판석을 세워 매장주체부를 만들. ·위석식 : 주로 여러 매의 할석을 상석아래에 돌려서 매장주체부를 만들.
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석 아래에 일정 범위에 할석, 천석, 판석 등을 쌓거나 간 시설물 ·분묘의 형식이나 매장주체부의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석식 지석묘와 석축석관에 가장 많이 설치됨) ·기능적인 측면 : 상석의 무게를 분산시켜 매장주체부를 보호 ·상징적인 측면 : 분묘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분묘를 알림 ·평면형태 : 장방형계, (타)원형계 → 장방형계 묘역이 대다수를 차지함 ·묘역 구획석 : 할석이나 소형판석을 쌓음, 판석을 세움. ·배치형태 : 단독배치, 연접배치 ·묘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구가 설치된 것도 확인됨 ·묘역이 지상에 분구형태로 조성되는 경우는 크게 반구형과 기단형이 있다.
묘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주체부가 설치되는 공간 ·묘광형태 : 1단묘광과 다단묘광으로 구분됨. ·다단묘광 : 주로 2단과 3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장주체부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두 채택됨.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다단묘광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광벽 보호 및 시신을 보다 깊은 곳에 안치하기 위해 사용 - 묘광을 넓게 축조하여 묘역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 - 묘광 내에서 매장주체부 재료 및 충전석, 시신 등을 운반하기 위한 계단 역할.
충전석 (충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주체부의 외곽을 채우거나 묘광의 빈 공간을 채울 때 사용하는 흙과 돌 ·기능적 측면 : 매장주체부 보호.(매장주체부 고정, 상부 하중 지탱, 묘광 밀폐) ·상징적 측면 : 死者와 生者の 분리 및 단절
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주체부 상부를 덮는 구조물(대부분 완전 밀폐됨) ·개석형태 및 덮는 방식이 다양하며, 1차 개석과 다중개석으로 구분됨. ·다중개석의 경우 상하 개석 간에 떨어진 것과 붙은 것이 있음.(붙은 경우 상하개석을 엇갈리게 배치)

매장 주체부	·시신 및 부장유물 보호 ·종류 : 석축석관, 상형석관, 목관, 토광, 목석관(木石棺) ·매장주체부의 바닥 종류 : 생토면, 판석, 잔자갈, 판석형 할석(전면, 일부분)
-----------	--

(2) 고창 고인들의 구조적 특징

먼저 고창 고인들의 세부속성 특징을 살펴보면, 상석은 평면 장방형, 방형, 제형 등 방형계가 우세하나 타원형, 삼각형 부정형 등도 확인된다. 상석의 무게는 전라북도 지방의 평균치가 9.6톤 정도인데, 고창지역은 평균치는 넘는 무게의 상석이 이용된다. 특히, 100톤 이상의 무게를 갖는 고인돌 7기는 모두 고창에서 확인되며, 80톤~100톤의 상석들도 고창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고창지역 고인돌에 사용되는 상석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고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의 상석을 채용한 고인돌은 주로 기반식 고인돌이 많다. 지석은 2~4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창읍 죽림리 D7호 고인돌, 고수면 상평리 고인돌, 아산면 대동리 A2호 고인돌, 학전리 B4호 고인돌, 암치리 암치 고인돌 1호, 고창 용계리 고인돌 Y-7호, 고창 운곡리 고인돌 A-5호, A-7호, B-3호, B-4호 등은 5개 이상의 지석이 확인된다. 특히 심원면 도천리 D호 고인돌은 장축 800cm, 단축 418cm 내외의 초대형 상석을 10개의 지석이 떠받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지석의 형태는 괴석형, 주형, 판석형 지석이 모두 확인되었는데, 고창읍 월암리 고인돌이군 13호 고인돌과 고창읍 죽림리 고인돌이군 D7호 고인돌처럼 주형지석과 판석형 지석이 혼재된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성송면 계당리 고인돌 B와 향산리 고인돌 D는 높이가 100cm 정도의 주형지석 4개가 상석의 각모서리를 받치고 있어 매우 정형한 형태이다. 묘역시설은 발굴조사된 것이 적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다만 일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양상을 보면, 고창지역은 경계석이 대부분 없으면서 조잡한 형태를 보이며, 부석시설은 주로 할석과 판석형 할석을 사용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석축석관과 상형석관이 주를 이루면 혼축형도 확인된다. 목관이나 토광의 형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는 고인돌도 많이 확인된다. 성송면 암치리 고인돌, 아산면 운곡리 A-4호, A-7호, B-7호, 계산리 고인돌 등이 있다. 특징적인 것은 모두 기반식 고인돌에서만 확인된다.

고창 고인들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탁자식은 도산리 고인돌, 죽림리 2509호 고인돌, 상금리 34호 고인돌 등이 확인되며, 앞서 설명한 지상식 고인돌 중 ‘지상석곽식’, ‘지석부가지상석곽식’의 일부 고인돌은 구조적으로 변형된 탁자식 고인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상석곽식은 죽림리 2309호~2313호, 2327호, 2329호~2331호, 강촌고인돌 등이며, 지석부가지상식은 죽림리 2428호, 지석부가지상석곽식은 죽림리 2324호, 2325호, 2328호, 2333호 등이다. 기반식 고인돌은 대

부분 거대한 상석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석은 기본적으로 4개이지만 다양하게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기둥모양의 ‘주형지석’의 채용이 두드러진다. 세부적인 형태는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은 형태로 6각이나 8각도 있으며, 높이는 60cm 내외이다. 높은 것은 150cm도 있다. 개석식 고인돌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인되는 사례가 적은 편으로 상갑리 A호가 대표적이다. 상석아래 지하식 매장주체부를 설치하고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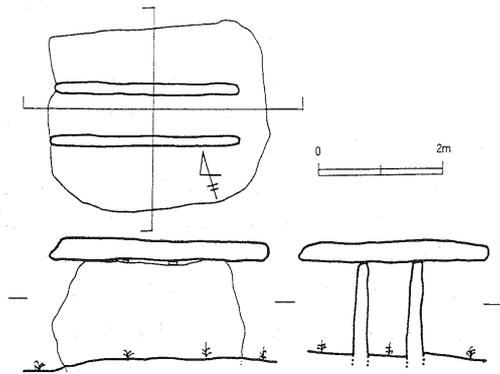
4. 맺음말

고창지역의 고인돌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특히, 고창 고인돌만의 특징이 주형지석을 가진 기반식 고인돌이나 지상식 고인돌의 다양한 형태들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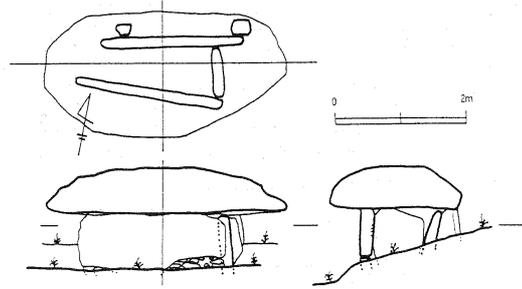
다만 고인돌의 수나 밀집도에 비해 조사사례가 적어 고인돌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가 정밀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창 죽림리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어 지속적인 발굴조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표조사나 단편적인 발굴조사 만으로는 고창지역 고인돌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활발한 발굴조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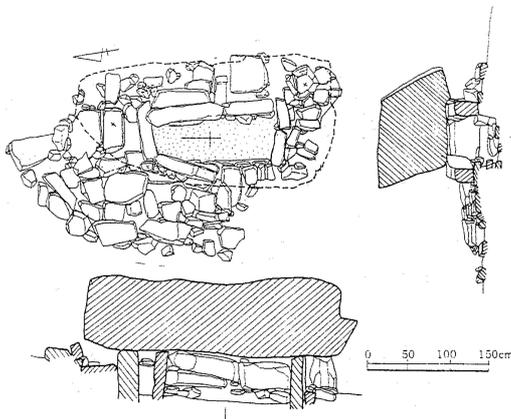
- 강동석, 2011, 「GIS를 활용한 지식묘 공간분포패턴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해-고창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제8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 2009, 『고창군의 고인돌』, 군산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46.
- 김범철, 2010, 「호서지역 지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한국상고사학보』 제68호, 한국상고사학회.
- 김선기, 2003, 「전북지방 지식묘의 현황과 고창지식묘의 특징」 『제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支石墓조사의 새로운 성과』, 한국상고사학회.
- 김하정, 2005, 「고창분지의 지형발달 특색」,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회과학원, 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연구』, 중심.
- 박현수, 1996, 「전북지방의 지식묘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 윤호필, 2013, 「축조와 의례로 본 지식묘사회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윤호필, 2005, 「靑銅器時代 多重蓋石 무덤에 관한 연구」 『咸安 鳳城里遺蹟』,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高敞郡-』, 高敞郡.
-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全北大學校博物館, 1984, 『高敞地方文化財地表調查報告書』
- 한국상고사학회, 2003, 『지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호, 한국상고사학회 학술 발표대회요지, 한국상고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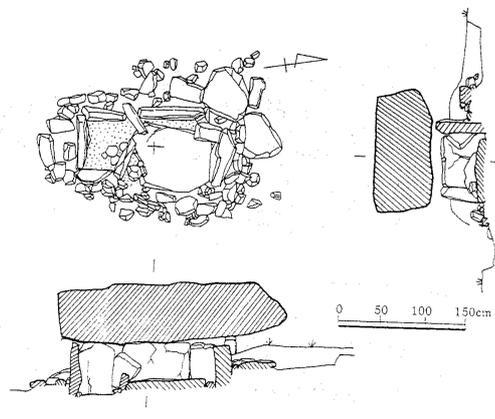
<그림 6> 도산리 탁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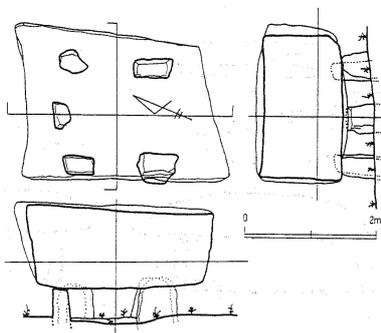
<그림 7> 죽림리 2428호 지석부가 탁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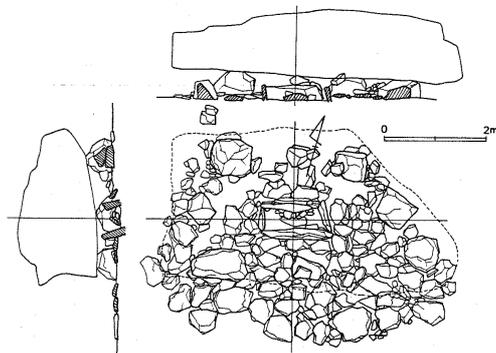
<그림 8> 죽림리 2326호 지석부가 지상석곽식



<그림 9> 죽림리 2323호 지상석곽식



<그림 10> 죽림리 2513호 기반식(주형지석)



<그림 8> 운곡리 B-3호 기반식

<표 5> 고창지역 주요 고인돌 유적 매장주체부 및 출토유물 현황표

연번	유적명	호수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비고
			규모(㎝)	장축방향	개석	장벽	단벽	바닥	관내	관외	
1	고창 부곡리 고인돌	1호	220×69×72	북동-남서		立	立	부분할석		대부완	지상형 석곽, 후대매장행위
		2호	116×54×61	북동-남서		立	立	기반토		사기 접시, 옹기	지상형 석곽, 후대매장행위
		3호	-				築	築			후대교란
		4호	114×50×41	북서-남동	1중	立	立	기반토			석관형
		5호	140×73×24	북서-남동				할석			석관형?
		6호	270×85	북서-남동		立	立	할석			
		7호	174×76×42	북서-남동	3중	立	立	할석			석관형
		8호	197×97×50	북동-남서	1중	築	立	부분할석			석관형
		9호	115×41×5	북서-남동				기반토			토광
		10호	143×65	북서-남동				할석			바닥석만 남음
		11호	152×54×30	북서-남동	2중	立	立	토기	호형 토기		석관형
		12호	168×71×38	북동-남서				기반토			토광
		13호	216×124×39	북동-남서			築	할석			석관형
		14호	140×57×33	북동-남서	1중	築,立	立	기반토			석관형
		15호	158×74×20	북동-남서				부분할석			석관형?
		16호	110×54	북동-남서				기반토			
		17호	194×83×35	북동-남서	1중	築	築	기반토			석관형
		18호	90×39×23	북서-	2중			기반토			토광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보존과 활용

				남동							
		19호	172×66×33	북동-남서	1층	立	立	할석			석관형
		20호	182×82×61	북동-남서	1층	立	立	할석			석관형
2	고창 예지리 대성 고인돌	1호	145×50×30							토기편 1	
3	고창 죽림리 고인돌①	2419호	-								
		2433호	-							무문토기편, 적색마연토기편	
		석실	190×30×36						원형점토대토기1		
4	고창 죽림리 고인돌②	2333호	156×73×66	남-북		立	立				
		2332호	-								
		2331호	90×60×40			立	立				
		2330호	155×60×42			立	立				
		2329호	160×44×42	남-북		立	立				
		2328호	84×50×20			立	立				
		2327호	135×64×55			立	立				
		2326호	168×60×60			築,立	築,立				
		2325호	130×60×40	남-북		立	立				
		2324호	130×66×50			立	立				
		2323호	168×60×60	남-북		築,立	築,立				
		2322호	160×65×60			立	立				
		2321호	80×50×45			築	築				
		2320호	160×70×50	남-북		築,立	築				
2319호	80×60×30			築	築						
2318호	-										
5	고창 죽림리 고인돌③	1호	212×46~57×32~48	동-서				판석형 할석		유경석축, 용기편, 자기편	석곽형
6	고창 운양리 고인돌	1	-								
7	고창 암치리 암치 고인돌	1	-							무문토기편, 적색마연토기, 석부	
8	고창 암치리 고인돌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7호	-								
9	고창 계산리 고인돌	1호	-								주형 지석
		2호	-								상석 이동
		3호	-								상석 이동
		4호	-								
10	고창 상갑리 고인돌	A호	90×50×30					생토		적 색 마 연 토기 호1	
		B호	150×40×35			築	築	생토			
		C호	125×50×40	북동- 남서		立	立	석괴			
11	고창 용계리 고인돌	Y-3호	120×40		1중						
		Y-4호	140×40×40	북서- 남동	1중	立	立				
		Y-5호	-								
		Y-6호	-								
		Y-7호	120×85×37	북서- 남동							
		Y-9호	-								
		Y-10호	-								
		Y-11호	-								
		Y-12호	145×44×44	동-서			立				
12	고창 운곡리 고인돌	A-1호	-	동-서		立	立	판석			
		A-3호	130×40×30					자갈			
		A-4호	-								
		A-5호	-								
		A-6호	-								
		A-7호	-					판석			
		C-1호	130×44×30								
		C-2호	150×50×50	남동- 북서	1중	築	築	자갈			
		B-1호	-								
		B-3호	110×44×30	북동- 남서		立	立	판석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보존과 활용

	B-4호	171×90×40	북동-남서		立	立	판석			
	B-5호	-								
	B-6호	-								
	B-7호	-								
	B-8호	-								
	B-9호	-								
	B-10호	-								
	B-11호	-								

<표 6> 고창지역 주요 고인돌유적 상석·지석·묘역 현황표

연번	유적명	호수	상석				지석	묘역	
			크기(cm)		형태				장축방향
			장축×단축×두께	평면	단면				
1	고창 부곡리 고인돌	1호	350×176×114	장타원형		북동-남서	3		
		2호	360×322×168	오각형	장방형	북동-남서	3		
		3호	456×320×112	장방형	장방형	북동-남서	3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	고창 예지리 대성 고인돌	1호	294×182×75	장방형		남동-북서			
3	고창 죽림리 고인돌①	2419호	340×156×154	장방형	장축:장방형 단축:방형	남-북	2		
		2433호	540×340×162~210	제형	삼각형	남-북	4	有	
		석실	-						
4	고창 죽림리 고인돌②	2333호	270×155×80	다각형	장방형	남-북	3		
		2332호	260×100×56	장방형		남-북			
		2331호	224×197×52	다각형		남-북			
		2330호	210×130×50	제형		남-북			

고창 고인들의 구조와 특징

		2329호	172×120×40	부정형		남-북		
		2328호	312×132×83	장방형		남-북	4	
		2327호	224×140×60	장방형		남-북		有
		2326호	320×175×90	제형		남-북	2	有
		2325호	170×105×48	장방형		남-북	2	
		2324호	310×160×50			남-북	3	
		2323호	220×135×60	제형		동-서		
		2322호	275×152×60	제형		남-북		
		2321호	250×100×65			남-북		有
		2320호	190×175×60	반월형		남-북		有
		2319호	160×116×40	장방형		남-북		
2318호	240×115×50			남-북				
5	고창 죽림리 고인돌③	1호	275×250×140	방형			5	
6	고창 운양리 고인돌	1	200×80×50					
7	고창 암치리 암치 고인돌	1	768×504×180~90		장방형		7	
8	고창 암치리 고인돌	1호	150×124×36	부정형	관석형	남-북		
		2호	281×180×112	장방형	장방형	동-서		
		3호	182×80×104	장방형	장방형	남동-북서		
		4호	224×105×122	부정형	반월형	남서-북동		
		5호	190×170×70	방형	관석형	남-북		
		6호	202×130×50	장방형	관석형	남-북		
		7호	340×200×52	장방형	관석형	남-북		
9	고창 계산리 고인돌	1호	650×350×340	타원형	괴석형	동-서	4	
		2호	330×190×50	방형	관석형	동-서		
		3호	180×150×40	방형	관석형	동-서		
		4호	280×250×80	제형	괴석형	동-서		
10	고창 상갑리 고인돌	A호	215×165×80	직방면체		동-서		
		B호	210×180×65				4	
		C호	160×120×40			북동-남서	1	
11	고창 용계리 고인돌	Y-3호	324×234×123			북동-남서	4	
		Y-4호	410×185×100			동-서	4	
		Y-5호	250×140×50					
		Y-6호	200×160×50			북동-남서		
		Y-7호	155×?×75				6	
		Y-9호	405×305×100					
		Y-10호	310×130×90					
		Y-11호	200×102×80					
		Y-12호	430×223×90			남동-북서	3	
12	고창 운곡리 고인돌	A-1호	388×298×120			북동-남서	5	
		A-3호	282×220×70			북동-남서		
		A-4호	410×375×115			북동-남서	3	
		A-5호	430×340×140			남동-북서	7	
		A-6호	290×280×?			동-서		
		A-7호	475×384×90			북동-남서	6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보존과 활용

	C-1호	365×320×135			남동-북서		
	C-2호	210×206×90			남동-북서		
	B-1호	-	부정 오각형		남-북		
	B-3호	575×330×154			북동-남서	7	
	B-4호	420×290×90			북동-남서	5	
	B-5호	495×355×210			북동-남서	4	
	B-6호	503×325×188			남동-북서	3	
	B-7호	215×200×115			남-북	3	
	B-8호	610×420×325			남-북	3	
	B-9호	-					
	B-10호	-					
	B-11호	435×400×194				3	

3. 고창 고인돌 유적의 활용방안 모색
- 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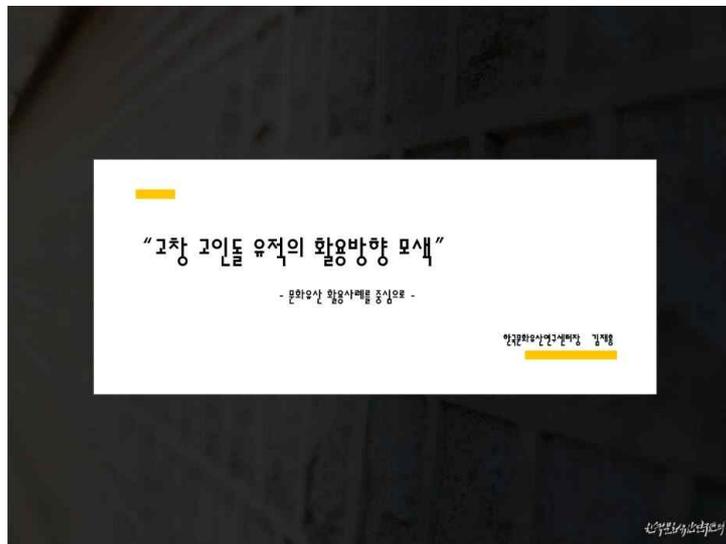
고창 고인돌유적의 활용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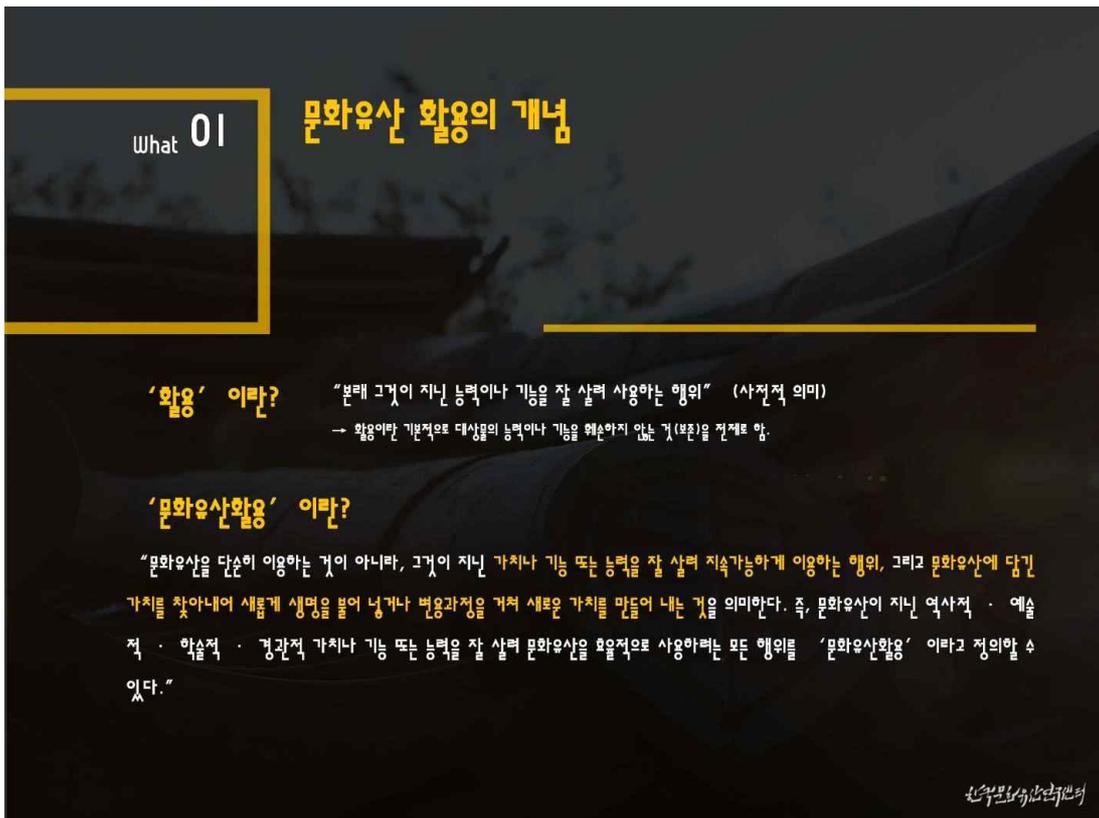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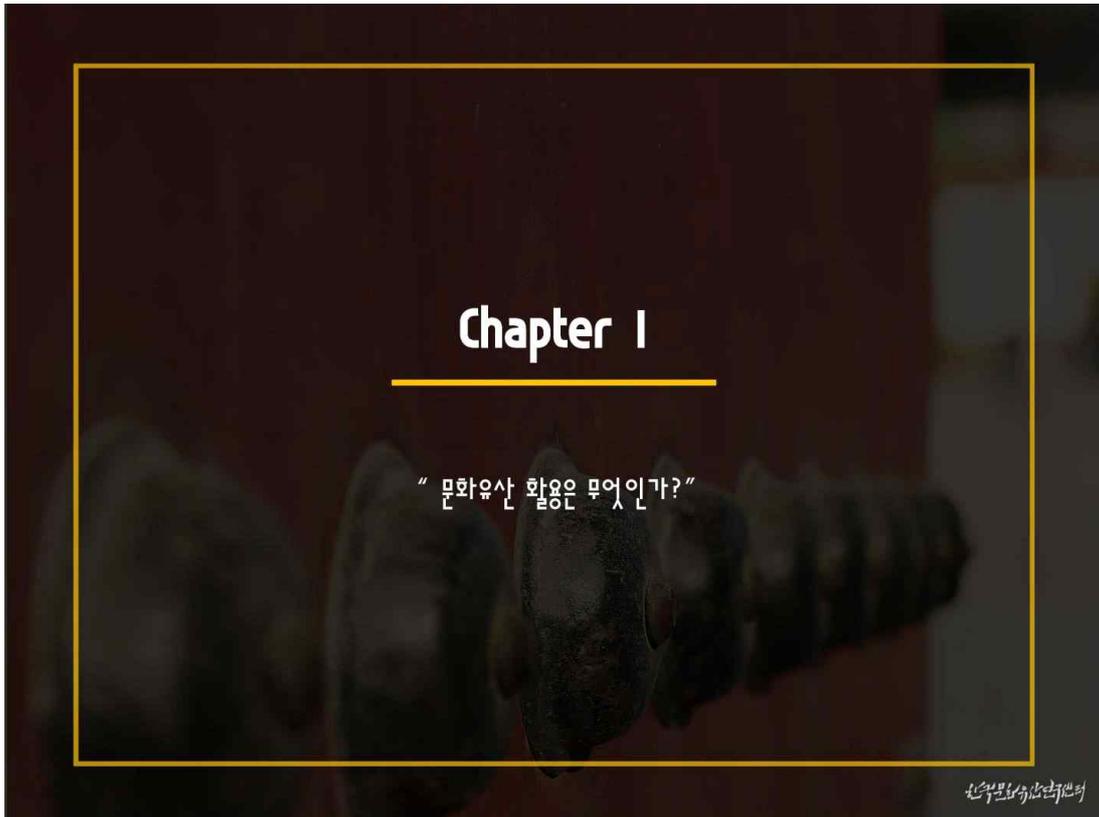
- 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목차

1. 문화유산 활용 What?
2. 문화유산 활용 Why?
3. 문화유산 활용 How?
4. 문화유산 활용 사례
5. 문화유산 활용 내일





What 02 **문화유산 활용의 위상변화**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영역의 역할 확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문화유산연구원

What 03 **문화유산 활용의 위상변화**

*문화유산 보존 양상의 변화

過

現

'보존을 위한 보존'의 개념

보존을 위한
수직적 관리시스템
(국민적 공감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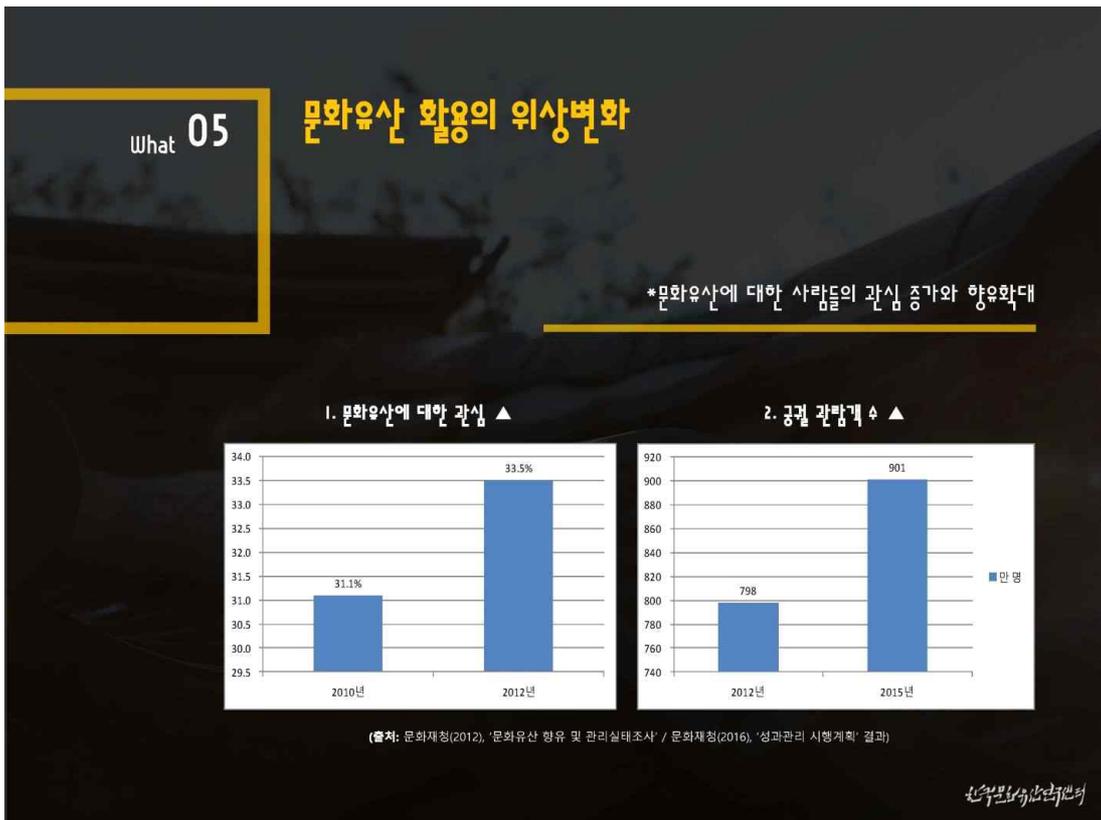
현상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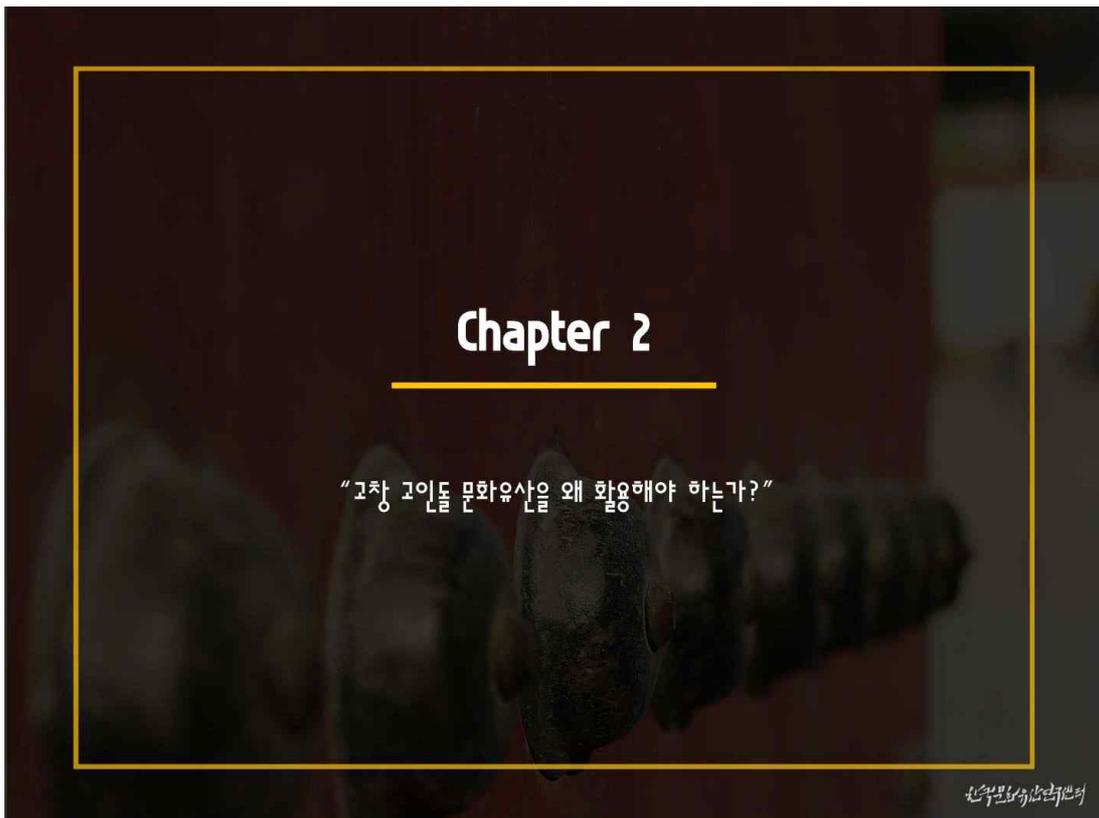
활용중심의 보존 개념 지향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적극적인 관리시스템
(국민적 공감 대)

국민 문화양육권 증대를 위한 적극적 보존

한국문화유산연구원





Why 01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

**역사 보존을 통한 경제적 가치(Donovan D. Auykema)*

- 1) 역사 보존을 포함하는 문화 관광 사업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점차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역사자원은 관광객 유치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 중의 하나이다.
- 2) 역사적 특징은 소도시에 관광기를 유치한다. 대도시들이 유명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도시들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역사적인 특징과 매력**이 있다. 많은 소도시들이 역사자원을 효과적이고 금전적 이익이 되는 경제개발 전략으로 활용해서 관광 사업을 해왔다.
- 3) 역사 보존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가진 **지역사회를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역사보존은 소규모 마을에서 효율적인 경제개발정책이며, 시골지역의 효과적인 경제개발 전략이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Why 02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

**문화유산 관광시장의 성장 동기*

개인적

사회적 욕구 증가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의식 증 향상
공익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문화행위 욕구 증가

**문화유산관광
시장의 성장**

국가적/국제적

새로운 사업형식의
기제별 확장

부가가치가 큰 산업
성장인 빠른 산업
새로운 사업형식의 가치
국가적 / 국제적 지원 지원

소요자 욕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고 2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Why 03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

*문화유산(문화재)의 가치 측정

- ✓ 문화재(문화유산)는 일반 경제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비시장재와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 문화유산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일반 시장재와는 달리, 경제적 가치에 더해 일반 재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즉 '문화적 가치' 를 갖고 있음.
- ✓ 그러므로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한국문화유산연구원

Why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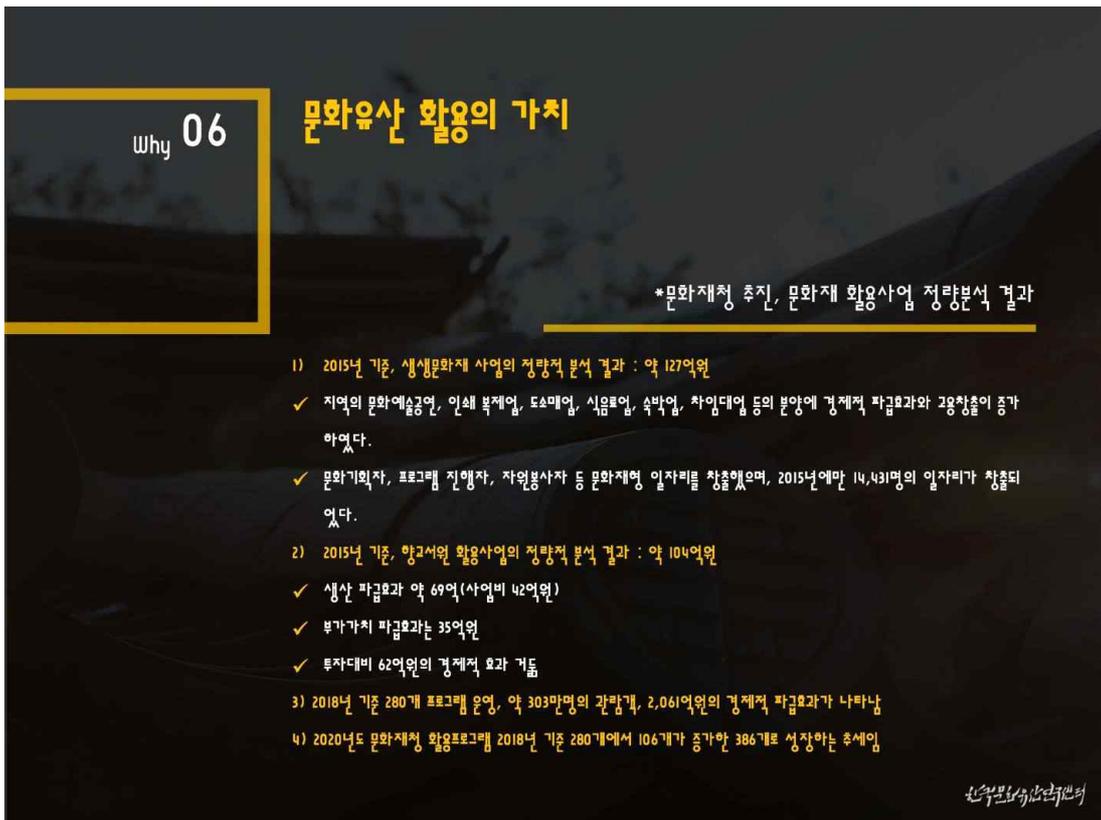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

*문화유산의 가치평가

문화적 가치
vs
현재적 가치



한국문화유산연구원



Why 07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

*문화유산 활용이 지향하는 실현 가치

- 1) 지역사회의 인프라 확충 (지역 문화 인력 확충 등)
- 2) 지역의 정체성 대변 (정주의식 및 자긍심, 애명심 고취 등)
- 3) 타 문화와의 교류 확대 (문화제엄 및 문화교류 기회 제공 등)
- 4) 지역의 브랜드 차별화 (지역 브랜딩 효과, 관광객 유치의 기록 등)
- 5) 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보존환경 조성 등)
- 6) 문화의 다양성 확대 (전통공예 및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등)
- 7)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는 매우 높다.”

02

한국문화유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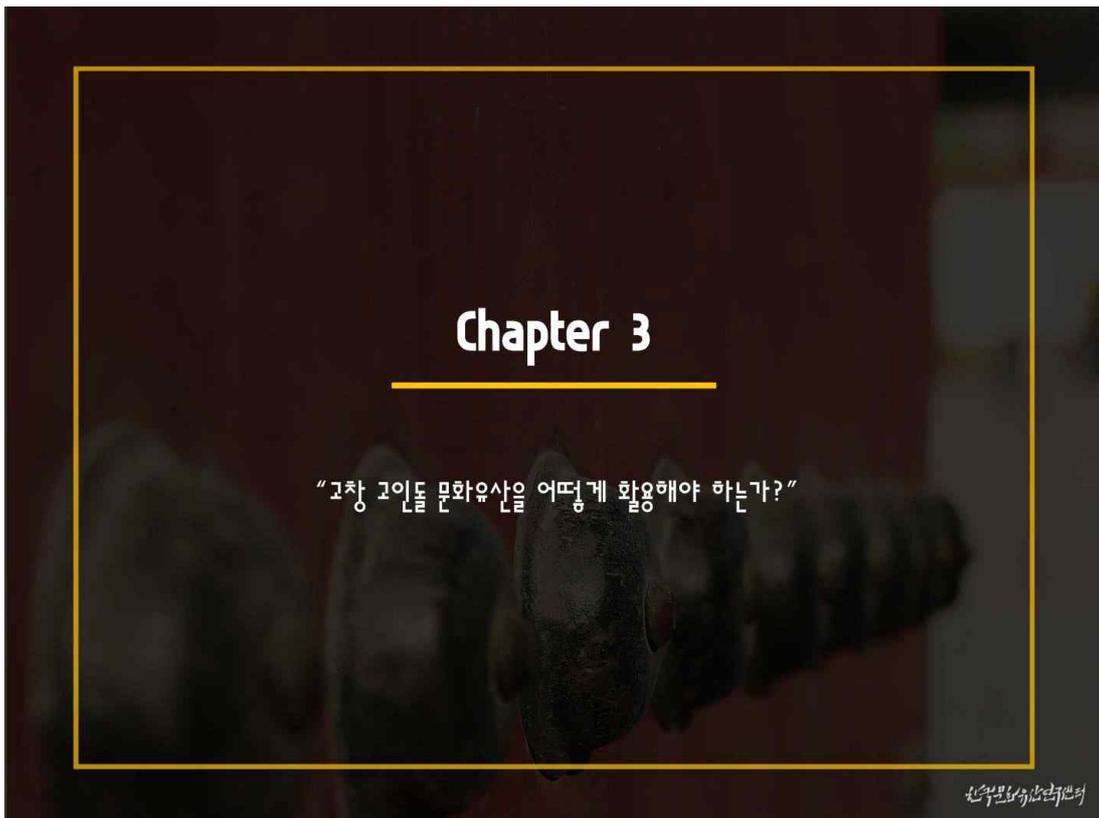


“문화유산 활용은 ----- 다.”

- 1) 문화유산 활용은 우수하고 고유한 고창의 고인돌 문화유산을 현대에 필요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 2) 문화유산 활용은 과거와 소통하고 가치를 나누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문화유산 활용은 고창의 고유한 브랜드를 통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와 이것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 다양성 실현의 기반이 된다.

03

한국문화유산연구원



Chapter 3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한국문화유산연구원

How 01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 활용의 유형은?

*문화재 유형별 분류와 대상

번호	분류	대상
1	유구문화재형	서원, 향교, 고국
2	전통마을형	마을단위 지역재생사업을 벌이는 비지정 민속마을
3	유적지형	폐사지 및 발굴지
4	자연미소형	명승, 천연기념물
5	근대문화재형	근대 공공 및 산업시설
6	무형문화재형	무형문화재
7	역사인물지형	생가
8	공공시설형	산성, 성곽, 관아
+9	+불교문화재형	+산사
+10	+야간형	+야행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유형별 활용길라잡이, 2011)

한국문화유산연구원

How 02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 활용의 유형은?

*2020년도 문화재청 추진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종류

구분	생생	향교서원	산사	야행	고택
사업대상	향교, 서원, 산사, 고택을 제외한 모든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 서원	문화재 보유 사찰	일정지역에 다수의 문화재가 밀집·집적된 지역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
시작연도	2008	2014	2017	2016	2020
추진방식	국가 + 지자체	국가 + 지자체	국가 + 지자체	국가 + 지자체	국가 + 지자체

한국문화유산연구원

How **03**

문화유산 활용의 방법

*문화유산의 가치 확대 선순환구조

문화유산의 이해 Understanding

▼

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Valuing

▼

문화유산의 보호 Caring

▼

문화유산의 향유 Enjoying

가치를 새로운 의미체계로 재해석

새로운 가치 발굴 · 창출

새롭게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확대

다른 가치체계와 결합

한성문화유산연구원

How **04**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 활용의 방향성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산의 활용

- ✓ 문화유산(하드웨어), 즉 기반시설을 정확히 알고 장점과 단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
- ✓ 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소프트웨어: 인물, 이야기 등) 발굴 필요
- ✓ 하드웨어의 장점은 소프트웨어로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소프트웨어로 보완
- ✓ 수요계층의 눈높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가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드웨어
문화유산

+

스토리텔링
(걸어다니게 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

프로그램/상품
모델도

작업요과 ▲

한성문화유산연구원

How 05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 활용의 방향성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문화유산의 활용

- ✓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어야 함. (흥미유발, 눈높이 맞춤, 신기한 콘텐츠 등)
- ✓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해야 함. (사용적, 주입식 방식 → 능동적, 자기주도적 방식)
- ✓ 일반인들이 찾아왔을 때 편하고 앉을 수 있어야 함. (세심한 배려, 안전장치, 안전대책 등)
- ✓ 다른 장소와 차별화된 개성(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함. (특화된 콘텐츠 발굴, 특성화 등)



재미 < 교훈



재미 = 교훈



재미 > 교훈

한국문화유산연구원

How 06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 활용의 방향성

*문화유산은 1) 스토리텔링, 2) 브랜딩, 3) 마케팅 하라!

1 고품격 체험 콘텐츠 새로 공급하라!

- 고품격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는 콘텐츠 및 서비스 기획 및 개발 관련 인력 확보
- 최근 유행하는 콘텐츠와 결합하는 체험, 참여형 등 차별적인 경험(스토리)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할 수 있다.
- 또한, 해당 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스토리텔링 기술 확보도 필요하다.

2 친밀한 사과의 선물 여의 라!

-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 다양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 고품격, 다양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 콘텐츠가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가 있는 콘텐츠가 있는 콘텐츠가 있다.

3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하라!

-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 다양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 고품격, 다양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 콘텐츠가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가 있는 콘텐츠가 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Chapter 4

“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활용 ”

한성문화유산연구원

포인트

- 一.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활용
- 二.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용
- 三. 융복합 활용
- 四. 야간 프로그램의 활용
- 五.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 六.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서의 활용
- 七. 문화축제로서의 활용
- 八. 지역 전문가 활용
- 九. 님사프로그램에서의 활용
- 一〇. 고보재 및 고구재 개발에서의 활용
- 一一. 최신기법을 통한 활용
- 一二. 활용을 통한 문화시설 확대로의 활용
- 一三. 지역 단체와의 협업으로서의 활용
- 一四. 사전 · 사후 관리로서의 활용
- 一五. 지역 활성화로서의 활용
- 一六. 브랜드로서의 활용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속초 도문농요 / '내 멋대로 농가밥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회암사지 / '회암사지, 조선왕실의 날개를 달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파주 자운서원 / '울긱드'



한국문화유산연구원









Chapter 5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 활용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 ① 문화유산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 ②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등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③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에 나가야 한다.
- ④ 보다 다양한 콘텐츠(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상품, 고고제 등)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예술분야, 첨단기술분야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활용가능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⑥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향유기회 확대와 활용의 다양화를 위해 야간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⑧ 지속가능한 활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⑨ 문화유산 활용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및 전문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⑩ 활용 프로그램 개발의 체계화 등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 ⑪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 브랜딩, 마케팅하여야 한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 활용의 내일(전망)

- ✓ 문화유산 활용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다가가는데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활용을 통해 우리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이로써 활용은 문화유산의 새로운 보존이라는 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 또한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그 문화유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이 될 것이다.
- ✓ 이제 문화유산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다가올 미래를 마주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할 때이다.
- ✓ 고창은 한반도 최대의 고인돌 밀집 지역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함
- ✓ 현 시점에서 문화재청 활용사업은 점차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돌을 활용한 지역 활용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므로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고창의 고인돌 유적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현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로 변환하는 작업과 함께 지역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고창 선운사, 그창읍성, 청보리밭 축제, 복분자, 풍천장어 등 다른 유형의 문화적 요소들과 함께 연결시켜 가치의 확대를 그려야 할 필요도 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참고문헌

- ✓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2007
- ✓ 문화재청, 2015 문화유산 활용 아카데미 자료집, 2015
- ✓ 문화재청, 2017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별 공모계획, 2016
- ✓ 문화재청,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계획, 2016
- ✓ 심승규,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문화재청, 2006
- ✓ 채경진, 문화유산 활용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효과, 문화유산의 가치제고와 미래 전략 심포지엄, 2016
- ✓ 김재용, 2014년도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활용사업 사례발표, 문화유산활용 아카데미 자료집, 2014
- ✓ 김재용, 포천 태조 어성개 유적지의 정비와 활용, 제2회 포천 역사문화 정책성 확립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2015
- ✓ 김재용, 영월 단종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관공헌 및 자그름과 다양성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방향, 2015
- ✓ 김재용, 용산서원 활용방안 및 향후전망, 2015년도 용산서원 학술 심포지엄, 2015
- ✓ 김재용, 백제 세계 문화유산의 활용방향, 백제 세계유산과 그 활용 학술대회, 전통문화연구소, 2015
- ✓ 그창근, 호남문화재 연구원, 그창 주립리 지석묘군 보존실태조사용역 보고서, 2019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유산 보존의 또 다른 방법이며,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품격을 더 높이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4. 영국 거석문화의 연구와 활용
- 스톤헨지 에비버리 세계유산 사례

이화종(한양대학교)

영국 거석문화의 연구와 활용 - 스톤헨지 에비버리 세계유산 사례 -

이화중(한양대학교)

<p>목차</p> <p>1. 문화유산의 관리</p> <p>2. 보존과 활용을 고려한 문화유산의 연구</p> <p> 1) 문화유산 가치의 다양성</p> <p> 2) 가치의 범주 : 전통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p> <p>3. 스톤헨지와 에비버리 세계유산의 사례</p> <p> 1) 개요</p> <p> 2) 스톤헨지 에비버리 세계유산 Research Framework</p> <p>4. 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한 연구 : 고창 고인돌 유산</p>

1. 문화유산의 관리: 연구 - 보존 - 활용 - 모니터링

문화유산의 관리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사·연구를 통해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사회적인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그림 1. 문화유산의 보존

조사와 연구는 관리의 시작점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세계유산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연구와 학술연구 기반의 조사의 결과이며, 등재신청과 관리계획의 수립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위해 깊이 있는 연구를 요구한다 (Darvill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나 고고학 혹은 역사학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학문적 입장에서만의 연구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세계유산의 경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유산의 정의가 설명하듯이 전인류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임이 증명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은 관리의 부분으로서 다시말해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2. 보존과 활용을 고려한 문화유산의 연구

1) 문화유산 가치의 다양성

세계유산을 포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두 원칙은 문화유산의 가치기반 (Value-based approach) 그리고 참여적 계획 (Participatory approach)의 수립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e.g. Mason, 2008 그리고 Hall and McArthur (1998) 등). 가치기반의 관리는 문화유산의 관리의 초점이 과거 물리적, 기술적 측면 보호를 통한 보존에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다양한 가치를 보호,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관리의 초점의 변화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하는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 즉 문화유산의 가치의 “다양성”이다. 여러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문화유산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매우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유산의 “가치의 다양성”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까?

문화유산의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치기반의 문화유산의 관리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전략을 수립을 위해 가치의 분류체계 혹은 범주화를 기본적으로 수반하고 있다. <표1>에서 보이는 다양한 전문가 혹은 문화유산 관리기관의 가치의 범주화는 이러한 논의를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 혹은 유형화를 통해 각각의 가치를 연구, 보존,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가치는 개별 유산이 위치하는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의를 모두 한국의 문화유산에 적용하는 것에는 분명이 한계가 있다.

Table 1 Summary of heritage value typologies devised by various scholars and organizations
(Reigl 1982; Lipe 1984; for the Burra Charter, Australia ICOMOS 1999; Frey 1997; English Heritage 1997).

Reigl (1902)	Lipe (1984)	Burra Charter (1998)	Frey (1997)	English Heritage (1997)
Age	Economic	Aesthetic	Monetary	Cultural
Historical	Aesthetic	Historic	Option	Educational and academic
Commemorative	Associative-symbolic	Scientific	Existence	Economic
Use	Informational	Social (including spiritual, political, national, other cultural)	Bequest	Resource
Newness			Prestige	Recreational
			Educational	Aesthetic

<표 1> 고고학 유적의 가치분류 예 (Torre와 Mason (2002, 9; 2008, 102))

2) 가치의 범주 : 전통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

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와 정의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가치는 크게 두 개의 범주 - 전통적인 가치와 현재적 가치 - 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학문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로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 과학적, 학문적 가치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은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들”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발견”되거나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고학 유적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대상유적의 위치와 규모와 같은 기본정보를 시작으로 생성과 폐기 연대, 조성집단, 집단이 가진 문화적 특징, 그리고 이런 문화적 특징의 역사적 의미 등이 전통적 가치의 범주에 든다. 다시 말해 전통적 가치의 주요 이해당사자는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며, 이들에 의해 전통적 가치는 “발견” 된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는 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관리 계획의 수립에 가장 주요한 내용인 유산의 보존 및 보호 전략은 전통적 가치에 포함되는 유적의 기초적인 정보로부터 시작된다.

현재적인 가치는 발견·정의된 전통적인 가치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문화유산에 “새롭게 부여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칭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이 범주에 포함되며, 이러한 가치는 문화유산이 실질적 기능을 하였던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 구성원”이 문화유산에 느끼는 가치로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이다.

이런 현재적 가치는 문화유산을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소유권을 가진 공공의 자

산으로서 예산과 시간, 관심과 같은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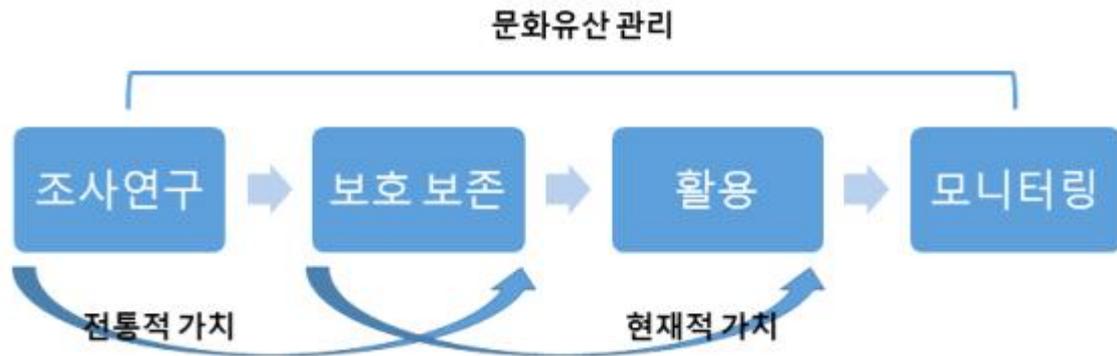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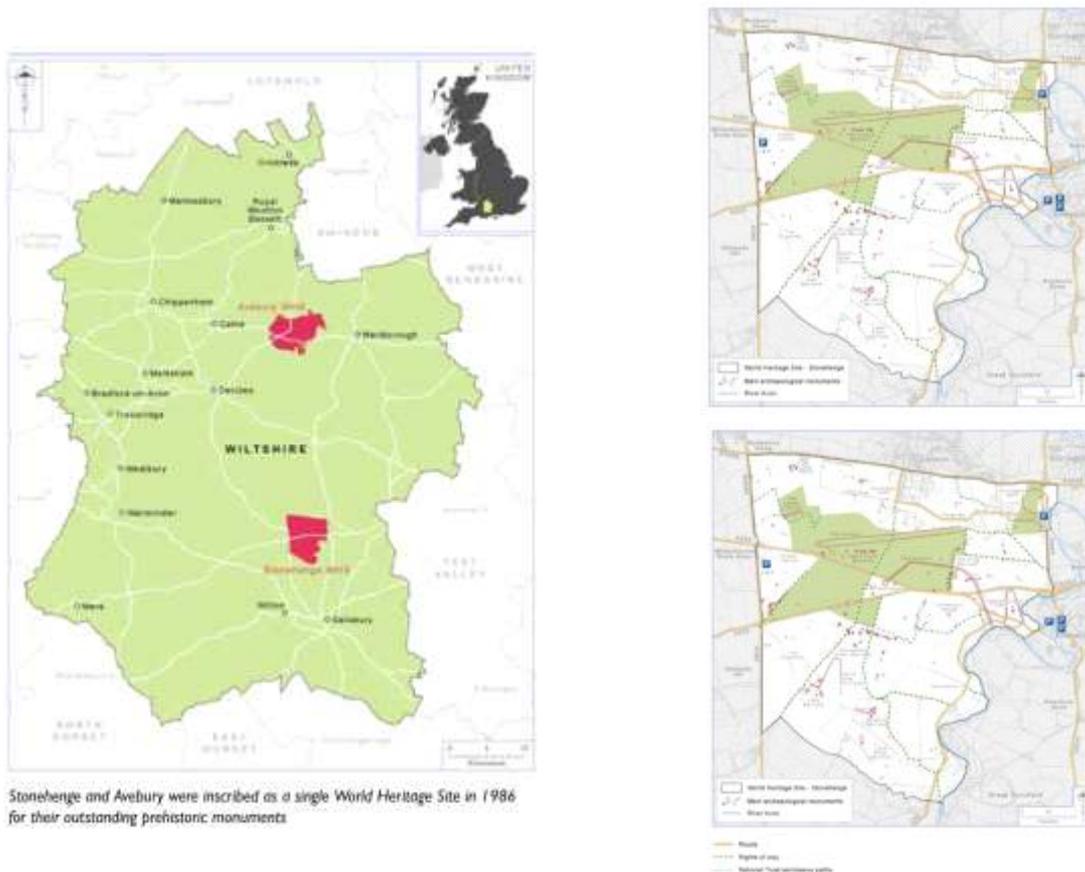


그림 2. 문화유산의 관리와 가치

3. 스톤헨지와 에비버리 세계유산의 사례

1) 개요



지도 1. 스톤헨지와 에비버리 세계유산

스톤헨지와 에비버리 세계유산은 잉글랜드 윌트셔에 있는 환상석렬의 거석군으로 세계유산 등재기준 i), ii), iii)¹⁸⁾에 근거하여 1986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스톤헨지와 에비버리는 각각 환상석렬 및 관련 유적, 그리고 신석기-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적이 포함된 경관으로 두 유산은 약 40km가량 떨어져 있다.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동시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두 경관의 연구, 관리, 활용 등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86년 등재이후 통합된 연구와 관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통합된 연구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세계유산센터의 한 개지역 이상에 분포하고 있는 연속유산에 대한 조직화된 관리를 권고한 UNESCO의 권고에 따라 두 유산의 분리 후 재등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07년 정부의 발표에 따라 두 유적의 분리에 대한 논의는 백지화 되었다. 그 결과로 그간 분리되어 수립 진행된 스톤헨지와 에비버리 세계유산의 연구와 관리에 대한 통합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15년의 새로운 통합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Stonehenge and Avebury and Associated sites World Heritage Site	
에비버리	스톤헨지
Henge and stone circle	
West Kennet Long Barrow	
Windmill Hill	
Silbury Hill	
The Sanctuary	
Avebury Management plan 2005	Stonehenge Management Plan 2009
Archaeological Research Agenda for the Avebury World Heritage Site 2011	Stonehenge World Heritage Site : An Archaeological Research Framework 2005

OUV 변경 및 세계유산위원회 승인

(37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June 2013 (Decision 37 COM 8E))

Stonehenge and Avebury Management Plan 2015

Research Framework for the Stonehenge and Avebury and Associated sites World Heritage Site - Research Agenda and Strategies 2016

18) 등재기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등재기준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등재기준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2015년 관리계획은 우선적인 8개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중 8번째는 “세계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고고학 연구와 교육 증진”이다. 이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유산의 고고학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증진 및 장려하고 이러한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대중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해 정책 7a-7 d를 설정하였다.

The priorities of the 2015–2021 Management Plan are to:

1. Protect buried archaeology from ploughing and enhance the setting of sites and monuments by maintaining and extending permanent wildlife-rich grassland and managing woodland and scrub
2. Protect monuments from damage by burrowing animals
3. Reduce the dominance and negative impact of roads and traffic and ensure any A303 improvements support this
4. Improve the interpretation and enhance the visitor experience of the wider landscape
5. Ensure any development is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and, where appropriate, enhancement of the monuments and their settings and the wider WHS landscape and its setting
6. Spread the economic benefits related to the WHS to the community and wider county
7. Encourage local community engagement with the WHS
- 8. Encourage sustainable archaeological research and education to improve and communicate the understanding of the WHS.**

표 2. 2015년 관리계획 8가지 과제

<p>7a. 유산의 Research Framework에 따라 지속적인 최선의 고고학 연구의 증진</p> <p>7b. 정보관리와 정도의 대중적 접근성 향상과 관련 자료의 저장과 보존을 위한 적절한 시설의 제공</p> <p>7c. 연구에 대한 확산, 의미의 설명, 교육, 대중의 참여 극대화</p> <p>7d. 생물의 평가와 같은 다른 종류의 연구 수행</p>

2) 스톤헨지 에비버리 세계유산 Research Framework

2015년 스톤헨지와 에비버리 유산의 통합된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계획에 포함된 “지속적 연구”를 위한 통합된 Research Framework 역시 만들어 졌다. Research Framework은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에비버리와 스톤헨지 두 개로 구분되어 설정 진행되고 있었다. 새로운 통합된 Research Framework를 평가-연구 Agenda 설정 연구 테마 개발 - 연구전략 수립 -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1) Research Agenda

연구 Agenda는 현재 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적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 한편, 연구 성과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여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스톤헨지와 에비버리의 개별 유적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개별유적 간의 관계, 시간적 공간적 경관의 문제 등에 대한 워크숍, 회의, 학회, 컨설팅 등 폭넓은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Agenda는 다시 온라인 베이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 경관, 지형 및 자원의 다양한 위치의 주거지역을 조성의 역할
- ◆ 경관의 중요성의 변동(언제나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다)
- ◆ 다른 지역과 연결 네트워크의 변화
- ◆ 두 유산에서의 각각의 인간행위의 스토리에서의 비교 대조 포인트들
두 유산의 세부 지역성의 이해
- ◆ 유산의 기원, 다양성, 이동, 인구변동, 식생 및 과거 인구의 갈등의 패턴변화
- ◆ 국내적, 국제적으로 보다 넓은 원칙적 Agenda의 기여를 위한 대한 고고학적 이해의 발전

(2) 연구 테마

연구의 Agenda에서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테마는 목적과 연구를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경관의 연결성	두 개의 복합체로서의 세계유산의 경관을 전체적인 이해
	어떻게 왜 경관은 발전하고 변화했는가? 경관의 어떤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연결이 어느 정도 범위에 분포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두 헨지가 신앙적 경관의 공통성에서 서로 연결 관계, 지형적인 연결, 자연환경과 측면에서의 연결성 등등에 대한 연구 필요
기념물	사회적, 상징적 의미에서는 공동체의 기념물로서 기술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목적

	<p>√왜 건설되었고 변화되었나? √왜 현재 형태를 가졌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어떤 행위가 있었으며, 왜 폐기되었는가? 다양한 형태, 위치의 유적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 조성되고 버려졌으며, 이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왜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성되고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음</p>
<p>매장유구</p>	<p>청동기시대 전기의 매장유구는 원형 매장유구가 주를 이루며 이는 이전 단계인 신석기에서 발전한 이유에 대한 이해</p> <p>√매장유구의 위치의 결정 요소는 무엇이며, 매장의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시간에 따른 다양성 (형태, 규모, 정교한 디자인, 매장의식 등)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두 개의 유산에서 모두 시각적으로 매우 잘 보이는 신석기시대 Long barrow 와 청동기시대 Round barrow 에서의 의식이나 완벽한 형태 등에 대한 연구부족</p>
<p>세대</p>	<p>유물과 유적의 분석을 통해 거주했던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p> <p>√인구의 기원, 다양성, 이동, 인구, 건강, 식생, 갈등은? 대형기념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적의 복합체로서 이를 조성하고 사용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보 부족, 매장과 관련된 행위 등은 연구가 되었지만, 이들의 실제 생활 연구 부족, 현재의 분석기술의 발전을 지난 세기동안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분석에 이용하여 연구</p>
<p>경관 역사</p>	<p>두지역의 경관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이해 목적</p> <p>√어떻게 두 지역은 중요하게 보였으며, 그 의미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주사용 시기에는 어떻게 보이고 취급되었는가? 공동체의 기념물로 건축되고 의식행위가 진행된 공간</p>
<p>일상생활</p>	<p>세계유산의 경관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이해 목적</p> <p>선사시대 기념물과 이에 추가된 유적의 건설과 사용 관련 두 기념물이 조성된 시기부터 유지되었던 시기 뿐 아니라 이후의 시기에서도 주변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줌</p>

(3) 연구 전략

목표 및 원칙

최선의 방법 (best practice)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이론적 기술적으로 검증된 최신의 방법(Innovation)

후대의 연구와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유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 ◆ 세계유산의 OUV를 보호, 증진하고 유산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증진
- ◆ 연구 프로젝트에 에서 최선의 진행방안과 지속가능성 소통과 참여의 주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원칙 제공
- ◆ 연구 프로젝트의 동의된 계획, 자금, 계약, 전과 과정을 통한 세계유산의 연구공동체간의 협동과 협력 증진
- ◆ Research Framework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과정 수립

1. 연구 프로젝트의 개발

- ◆ 연구프로젝트는 WHS의 동의된 계획의 과정에 따라야 한다.
- ◆ 다양한 목적과 기관 및 개인에 따라 진행되는 연구는 관련기관의 감독, 허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Wiltshire Council Archaeology Service : 신고 및 허가 주기관

Avebury and Stonehenge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Research Group :
자문기구

The Historic Building and Monuments Commissions : 정부기관 - 관리책임

National Trust : 세계유산의 1/3 가량 관리, 토지소유

Salisbury Museum, Wiltshire Museum Alexander Keiller Museum: 관련 유물
소장

- ① 연구결과를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연구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필요한 인허가 및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진행한다.

-
- ③ 연구원칙을 반영한 연구진행계획을 선행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인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 ④ 프로젝트 디자인에는 결과가 보관될 곳을 결정하고, 월서 OASIS (Online AccesS to Index of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에 디지털자료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프로젝트 디자인은 이 Research Framework에 반영하고, 다른 지역단위 혹은 국가단위의 Research Framework을 반영하다. 이러한 Framework은 규범은 아니며, 관점을 확장한 합리적인 연구는 Framework의 업데이트와 재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 ⑥ 모든 연구는 프로젝트의 시작에 앞서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⑦ 모든 연구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하고 프로젝트를 디자인 할 수 있거나 적절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야 한다.
 - ⑧ 소장유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그 결과가 적절한 곳에 누적하고 자료는 미래의 연구자가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파괴분석의 반복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

2. 연구의 실행

- ◆ 최근의 기술을 반영한 가장 적절한 고고학적 그리고 비고고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이는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에 적절하여야 한다.
- ① 기존 발간되지 않은 현장조사에 대한 모든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단일한 디지털 보관이 필요하고, 결과물을 저장과 보관을 위한 적절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 ②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장려하고, 새로운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한 가능성은 적절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전에 연구프로그램이 형성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③ 기존의 다양한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 ④ 최소한의 영향으로 여전히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전에 유물이나 시행된 발굴조사의 트렌치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
- ⑤ 이전 조사된 트렌치의 재조사를 통해 과거에 고려되지 않았던 자료의 발견이 나 보다 상세한 기록은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⑥ 비파괴조사는 세계유산 뿐 아니라 다른 유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이다.
 - ⑦ 새로운 발굴조사의 필요는 명확하게 설정되어야하고 연구질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한다.
 - ⑧ 유산의 지점에 따라 다양한 보존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상태에 대한 정보는 GIS를 기반으로 월셔의 시스템 (WSHER Enquiries)에 보존되어야 한다.
-

3. 정보관리

- ◆ 효과적인 정보의 관리 - 획득, 구성, 보존, 전시, 확산 - 는 모든 연구의 핵심이다. 기존의 모든 정보는 WSHER Enquiries에 GIS를 기반으로 보관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보과장소는
- ◆ 연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발견 위치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른 자료들이 분석을 가능토록 보관되며
- ◆ 파괴 및 비파괴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경관과 관련된 기록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가장 성과가 좋은 현장조사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 ◆현재의 정보와, 회색 자료 그리고 물리적 혹은 디지털 기록의 리뷰를 통해 개발사업을 포함한 모든 연구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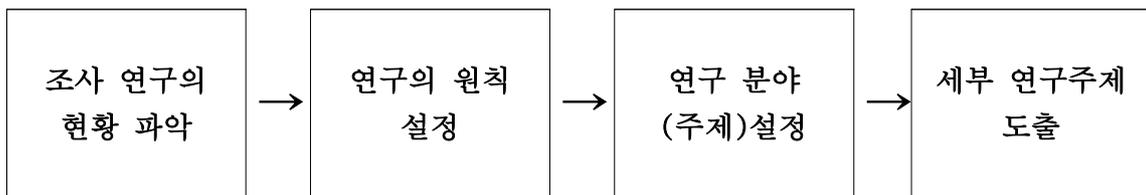
-
- ① Wilshir와 Swindon Historic Enviroment Record는 자료관리의 중심기관이다.
 - ② 모은 GIS 자료는 WSHER에 보관된다.
 - ③ 존재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유지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④ GIS layers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관련된 정보 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및 물리적 기록(고고학, 박물관 소장품 등)회색출판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 ⑤ 유산내에서 모든 연구의 중간 및 요약은 WSHER에 즉각 제출되어야 하고 이는 OASIS 시스템의 형태로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한다.
 - ⑥ 비파괴조사는 세계유산 뿐 아니라 다른 유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이다.
 - ⑦ 새로운 발굴조사의 필요는 명확하게 설정되어야하고 연구질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한다.
 - ⑧ 유산의 지점에 따라 다양한 보존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상태에 대한 정보는 GIS를 기반으로 월셔의 시스템 (WSHER Enquiries)에 보존되어야 한다.
-

4. Research Framework의 발전

◆ 세계유산의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Research Framework은 업데이트 및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평가와 함께 미래의 평가를 반영하여 Research Agenda, 원칙 전략을 수정한다.

-
- 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Research Framework의 발전을 고려하고, 이는 ASAHRG의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WHS 연간 모니터링 통해 진행한다
 - ② 장래의 Research Framework은 효과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미팅, 컨설팅을 포함하며, 장기적으로 web을 통한 공개
-

4. 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한 연구 : 고창 고인돌 유산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 역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은 당연할 것이며, 과정을 이끌어 나갈 연구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 연구방향의 설정은 앞서 사례로 살펴본 스톤헨지 에비버리 세계유산의 Research Framework의 도출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성과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고창 고인돌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염두에 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유산으로서 또한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 안에서 세부적인 연구분야의 도출 및 개별 연구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고, 각각의 연구주제에 따른 세부 연구 주제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다만 고창 고인돌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1)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 (OUV)”를 위한 연구에 기반한 전략수립

고창 고인돌 유적은 2000년 화순,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과 함께 “The Koch’ang,

Hwasun, and Kanghwa Dolmen Sites”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는 OUV 기준 iii)의 정당성이 입증되어 등재되었다. 이는 고창 고인돌 유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미 등재과정에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등재과정에서 도출된 OUV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주요 목적 및 목표로 설정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OUV의 변경 역시 고려 할 만하다. 2000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한국에서는 고인돌 및 청동기시대 문화전반에 대한 연구자료는 놀랄 만큼 축적되었다. OUV의 변경은 이러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기존에 제시된 기준 iii)에 대한 정당성 및 중요성 서술의 변경, 또 한편으로는 다른 기준에 OUV에 새로운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OUV의 변경은 단순히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의 관리, 보존, 활용은 유산의 OUV를 보호, 증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OUV는 연구-보호-활용으로 이어지는 세계유산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Framework의 도출이 가능하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2. Justification for Inscription
(등록의 정당성)

a. Statement of significance
(중요성 서술)

- 고인돌은 선사시대 무덤의 한 종류로서 거석기념물의 하나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 연구를 통하여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 정치 체계는 물론 당시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다.
- 고창·회순·강화지역의 고인돌은 한국에서도 가장 밀집도가 높을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분포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그 숫자의 방대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 이른바 북방식이라 불리는 탁자식, 여러매의 받침돌이 지상에 노출된 지상석곽형, 남방식인 바둑판 형식 등 다양한 형식이 분포되어 있으며,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알 수 있는 체석장의 존재 등 우리나라 고인돌의 기원 및 성격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유적이다.

<p>d. Criteria under which inscription is proposed (and justification of inscription under these criteria) (등록을 위해 제안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의 평가기준상 ③항에 해당함. □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한 지역에 수백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분포하고 있고 그 형식도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고 있어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주요한 유적이며 유럽과 중국·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유산이다.
---	---

<세계유산센터 등재 결정문>

Property	The Koch'ang, Hwasun, and Kanghwa Dolmen Sites
Id. N°	977
State Party	Republic of Korea
Criteria	C (iii)

The Committee decided to inscribe this property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basis of *criterion (iii)*:

Criterion (iii): The global prehistoric technological and social phenomenon that resulted in the appearance in the 2nd and 3rd millennia BCE of funerary and ritual monuments constructed of large stones (the “Megalithic Culture”) is nowhere more vividly illustrated than in the dolmen cemeteries of Koch’ang, Hwasun, and Kangwha.

Supporting the nomination, the Delegate of Australia commended the impeccable state of the site and hoped that when the time is ripe, dolmen sites north of the 38° parallel would be added.

2) 연속유산으로서의 연구 방향의 설정

고창 고인돌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세계유산의 형태상 연속유산의 형태로 동시에 등재된 화순과 강화도의 고인돌과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은 스톤헨지 및 에비버리 유산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관리구조를 가지고 별도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한 개 이상의 지역에 분포하는 연속유산에 대한 조직화된 관리와 연구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세계유산의 권고를 고려하면 고창 고인돌 유적의 연구의 방향성은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큰 방향성이 설정되고, 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개별 유적별 연구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연속유산으로서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의 연구전략의 확대는 현재 등재된 유산만이 아니라 확대등재의 가능성 역시 고려 할 수 있다.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등재 결정문의 권고에는 북한지역의 고인돌 유적까지의 확장된 등재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정치 경제적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확대된 연구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속유산의 추가등재도 가능 할 수 있다.

3) 연구를 위한 시설과 조직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연구방향 및 전략의 수립이 결국 실행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다. 스톤헨지와 에비버리의 예에서 보듯, 세계유산에서의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목적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크다. 이를 위해 조사 연구된 자료가 연구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의 기반은 연구의 성과가 보관, 보호, 공개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와 시스템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세계유산은 분리되어 있는 관리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시스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이 연구되는 이유는 유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증진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는 단순히 연구자만의 분야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Darvill, Timothy. 2007. Research frameworks for World Heritage Sites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archaeological knowledge. *World Archaeology*, 39:3, 436-457.

Hall, C.M. and McArthur, S. 1998. *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Leivers, M and Powell, B.A. 2006. *A Research Freamework for the Stonehenge, Avebury and Associated Sites World Heritage Sute: Research Agenda and Strategies*. Wessex Archaeology Monography 39.

Mason, R. 2008. Assessing Values in Conservation Planning: ethodological issues and choices. Fairclough, G., Harrison, R., Jameson, J., Schofield, J (eds) *The Heritage Reader*. Oxon and New York, 99-124.

5. 고창 고인돌유적의 사회적 가치

김태식(연합뉴스)

고창 고인돌유적의 사회적 가치

김태식(연합뉴스)

목차

1. 보리밭 vs. 잔디밭
2. 한국 속의 고창
3. 세계 속의 고창
4. 고창 고인들의 현황
 - 1) 숫자
 - 2) 사후의 공간만?
 - 3) 마스코트의 부재
 - 4) 조경의 부재
 - 5) 고지형 복원의 문제
5. 고창 고인들의 미래

1. 보리밭 vs. 잔디밭

이웃집 애기 줌 하려 한다. 이 이웃집은 멀쩡한 유산 때려 부수고는 흥길동테마파크라는 괴물을 주물하질 않나, 그리 만들었으면 제대로 이용이나 할 일이지, 가서 보면 폐가촌인지 전설의 고향인지 구분이 여간치 아니하며, 그 귀하디귀하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막 탄생했는데도 하다못해 그런 기분조차 느낄 만한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 이럴 거면 왜 세계유산은 만들려 했나 하는 의구심이 증폭한다. 그래, 우린 원하지 아니했는데 외부에서 그리 했다 하면 할 말은 없다.

이 이웃집에 삼계면과 삼서면이라는 데가 있다. 언젠가 초봄, 나는 이곳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는데, 그 넓은 벌판이 온통 누른 별천지가 펼쳐졌다. 동행한테 물으니, 저들이 모두 잔디밭이란다. 잔디? 무슨 잔디? 금잔디? 뗏장이란다. 뗏장으로 쓸 요량으로 키우는 잔디농가란다. 그랬다. 이 일대 수백만 평인지 얼마나 될지 눈대중으로 가늠이 되지 아니하는 그 넓은 벌판에 벼농사 흔적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온통 잔디밭이었다. 듣자니 이곳 잔디가 한국 잔디 생산량 절대를 차지한다고 한다. 언제

적인지 모르겠다. 나는 조선왕릉을 보면서 이성계 무덤인 동구릉 건원릉이라는 왕릉 봉분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 넓은 묘역墓域을 뒤엎은 잔디를 보면서, 조선시대 당시에 이랬을까? 그렇다면 이들 잔디는 어디에서 캐왔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다가 지금의 서울 서대문 독립문이 선 그 일대에서 캐서 조달하곤 했다는 기록을 접하고는, 그런 흔적이 혹여 지금이라도 남았을까 찾아 나선 기억이 있다.

그랬다. 대규모 공사에 따르는 조경, 그에 필수와도 같은 잔디는 그 절대량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런 잔디농장을 경영한다는 사람한테서 이 일대에 잔디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이며, 현재 작황은 어느 정도이고, 판로는 또 어떠하며, 시세는 어떠한지를 캐묻기로 했다. 이런 의문점들을 해명하면서, 이들 잔디밭은 언제가 장관인지 묻기도 하면서, 아울러 나는 잔디 키워 파는 것 말고, 문화상품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냐고 물었더랬다. 하다못해 잔디카페라도 없냐고 말이다. 없단다.

내 주변 지인들 중엔 골프광들이 포진한다. 그런 친구들이 저 잔디밭을 보면 틀림없이 막대기 들고 설치리라. 그런 광들을 모아놓고는 돈벌이도 할 성 싶었다. 가장 단순한 드라이브 샷 멀리때리기 대회라도 할만 했다. 한데 잔디 농사 말고는 그 부대상품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하기야 잔디만 심어 키우고도 먹고 사는데 그런 거 추장스런 상품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비하면 이곳 고창은 참말로 깐 곳이랄까, 암튼 희한한 고장이라, 누구 아이디어인지, 혹은 자연발생으로 그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고창의 이른바 인지도를 올린 제1등 공신으로 나는 보리밭을 뽑거니와, 돌이켜 보건대 보리밭으로 장사가 되는 세상이 오리라 누구 하나 장담, 혹은 그런 생각이라도 한 사람 있었겠는가? 시대는 변했다. 보리가 아니라 보리밭, 그보다는 더 엄격히는 보리밭이 연출하는 경관landscape를 팔아먹는 시대, 그것이 돈벌이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진입했다.

이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옮겨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을 우리는 그 가치에 걸맞게 제대로 팔아먹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그것의 위치를 냉혹히 점검해야 한다.

2. 한국 속의 고창

2012년 어느 봄날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는 자세한 기억이 없으나, 나로서는 이른바 남도답사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부안을 출발해 저 남쪽 해남 강진을 돌아보는 코스를 잡았더랬다. 부안을 둘러보고 출발하는 나는 그날 저녁

고창읍내 어느 곳에 투숙했다가 달아난 잠에 기대어 무작정 밖으로 나서 불빛 은은한 한 곳으로 스며들어 다정도 병인양 하는 심정으로 담벼락을 거닐었으니 그곳이 바로 모양성 牟陽城이라고도 하는 고창읍성 高敞邑城이었다. 그 자리한 데가 읍내라 더 그랬겠지만, 야간 조명 시설을 적절히 갖춘 그날 밤 모양성은 마침 만발한 벚꽃으로 환상을 빚어내는 중이었다. 적절히 따뜻한 봄날 밤을 벌들도 그냥 보내기 힘들었는지, 흐드러진 벚꽃 송이마다 그들이 내뿜는 소리는 오케스트라 교향곡 연주와도 같았다. 이후 나에겐 고창이라고 하면 언제나 이 모양성 봄날로 치환하며, 그런 기억의 잔영이 하도 깊어서인지 이후 자주 고창을 찾곤 한다.

다른 유산들에 견주어 이 모양성이 조선시대 읍성으로서 지닌 특징이 지역사회, 혹은 이른바 이 분야 전업적 학계를 벗어난 외부 사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가 하거니와, 물론 그렇다 해서, 이런 나름 한적함을 외부에서 무한적 많은 관광객을 끌어와서 그들로 득시글하는 데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고창이 어떤 문화자산들을 갖춘 고장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각인할 필요는 있으며, 나아가 그런 자산들을 외부로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나는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시각에서 그 속에서 고창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며, 둘째, 세계 속의 고창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일이 그것이다. 먼저 한국 속에서 고창은 내가 알기로 그 어떤 고장보다 문화유산 혹은 자연유산 가치가 풍부한 곳이다. 잠깐 본 모양성 말고도, 그와 같은 조선시대 읍성으로서 고창 경내에는 무장읍성 茂長邑城이란 곳이 있어, 근자 활발한 발굴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중이거니와, 비격진천뢰 飛擊震天雷라는 조선시대 포탄이 대량으로 출토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무장읍성은 그 전체 모양, 다시 말해 성곽이 비교적 온전히 남은 모양성과는 달리, 대부분이 훼손했기는 하지만, 그 내부와 외부는 인위의 조작을 거의 타지 않은 데다, 관련 건축물은 일부까지 남아있어, 모양성과 연계한 문화자산 활용에는 더없이 좋은 보기라고 본다.

이런 자산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고창은 모양성 중심 읍내 권력을 필두로, 서쪽으로 차차 진출하면서 그 어중간에 오늘 우리의 주인공 고인돌 유산이 포진하며, 다시 그 너머로는 선운산권이 있어, 선운사 권력이라 부를 만한 곳이 있음을 누구나 안다. 이는 주로 문화유산 관점에서 본 것이요, 선운산과 선운사는 그 자체 절반은 자연유산이거니와, 내친 김에 자연유산으로 확대하면, 장성과 걸치는 구간에 방문산 방장산 일대 자연휴양림이 훌륭한 자산으로 꼽히고, 다시 그 너머 서해변을 따라 고창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자산으로 꼽을 만한 위대한 유산, 갯벌이 광대무변하게 펼쳐진다. 갯벌이라고 하면, 작금 서남해안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이거니와, 물론 그 등재 대상지에서 고창 일대가 포함되지는 아니한 것

으로 알지만, 그것이 세계유산이건 아니건, 갯벌이 지닌 자연유산 가치가 결코 훼손하지는 아니한다. 그 활용을 위해 현재 심원면에 하전갯벌체험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

덧붙여 고인돌공원과 퀘를 이루어 운곡람사르습지도 빼놓은 수 없는 자연경관으로 꼽을 만하다. 따라서 고창은 고산준령高山峻嶺을 빼고는 인문·자연유산의 대표곡은 모두 갖춘 교향악의 고장이라 해도 좋다고 본다.

앞서 나는 고창 보리밭으로 이야기 대문을 삼았거니와, 계절성을 타는 이런 풍경 혹은 경관, 더구나 현대와 아주 가까운 시대에 조영된 그런 풍경 혹은 경관이 문화자산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런 계절성 자산과 관련해 무형 혹은 유산 어느 곳에 포진시켜야할지 언뜻 단안이 서지는 않지만, 송창식의 노래로 유명세를 탄 봄날 ‘선운사 동백꽃’도 고창을 논할 때 결코 뺄 수 없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달라질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겠지만, 고창이 살 길은 첫째도, 둘째도 관광이라 나는 본다. 앞서 든 저와 같은 훌륭한 인문·자연환경을 갖추고도, 그것으로써 살 길을 개척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와 자연에 대한 죄악이라 나는 본다.

이를 위한 당국의 고무적인 움직임도 감지한다. 고창군에서는 근자 문화유산관광과를 신설 혹은 확대한 것으로 안다. 종래 압도적인 문화재 위주 관점에서는 문화재와 개발을 적으로 간주하고, 더불어 관광 역시 고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현행 문화재관련 법령의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개발이라는 말이 문화재보존의 상극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문화재 활용은 그렇게 많이 부르짖으면서도, 그 활용의 핵심인 관광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이하기만 하다. 이에서도 나는 문화재계의 그 어떤 격렬한 저항을 본다. 개발과 보존이 따로갈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나 같은 길을 가야 하거니와, 실제 유네스코가 시종일관 내세우는 관점이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개발이라는 말이 싫어 요새는 이 말조차 ‘발전’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개발이건 발전이건 무에 중요하단 말인가? 문화재는 개발, 혹은 관광과 결코 적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를 전담하는 부서로 문화유산관광과라는 간판을 내건 데 대해서는 나는 적어도 불만이 없으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 이참에 나는 문화재청에서도 보존 혹은 활용을 뛰어넘어 그 관점에서 관광을 내세우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흐름에서는 적어도 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론 속내를 따져보면 인력 부족에서 유래하기는 하겠지만) 더 선진적이라고 본다. 이런 전담 부서를 통해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으로 안다.

문화재 관련 행사만 해도 이태전에 나로서는 이곳 문화재야행 행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거니와, 이 행사가 현재도 계속 중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가 초래한 문제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현실이거니와, 내실 있는 축제 혹은 행사들을 기대해 본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다 할 사전 조사가 없어 해량을 구한다.

3. 세계 속의 고창

우리 것이 최고라는 진부하고도 내셔널리즘 물씬한 말은 하지 않겠다. 세계인의 시각에서 무엇을 논할 때는 단순히 우리 것이 최고라고 강짜를 부릴 수는 없다. 무엇이? 그리고 왜? 그것이 세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창은 여타 어느 고장보다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첫째,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고인돌유적이 그것이며, 둘째, 람사르협약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에 의한 람사르습지 Ramsar Wetland 로 등재된 운곡습지 Ungok Wetland 가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은 해발 150m 야트막한 성틀봉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각 위치하거니와, 실상은 같은 구역이라 해도 대과가 없다.

고인돌유적과 운곡습지는 문화재 관점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각기 나눌 수 있지만, 이게 좀 묘하다. 우리는 습지라는 이름에서 운곡습지를 자연유산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 그 출발은 문화유산이다.

운곡습지雲谷濕地는 이른바 오베이골로 일컫는 계곡에 형성된 저수지로서, 2001년 4월 7일 한국에서는 16번째로 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에 의한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거니와, 더불어 이것이 발판이 되어 2013년 5월 28일에는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곰소만으로 흘러드는 주진천 지류 중 하나인 고창천이 전면으로 관통하는 이곳은 과거엔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다가 1981년, 당시에는 영광원자력발전소라 일컫던 지금의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확보를 위해 조성한 인공저수지다. 이렇게 만든 인공저수지가 이제 시간이 흘러 생물보고로 드라마틱하게 탈바꿈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자연유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경계를 생각할 때 매우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도 좋다.

더불어 운곡습지라는 인공저수지의 등장은 인근 고인돌유적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보존정비되기에 이르는 발판도 일정한 기여를 한다. 고창 고인돌유적 Gochang

Dolmen Site은 익히 알려졌듯이, 지난 2000년, 고창·화순·강화고인돌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개중에서도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에 등재된 일부다. 이 고인돌유적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살피겠거니와, 아무튼 이로써 보건대 고창은 이미 국제무대에 다양한 자산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국내에서는 물론이러니와, 정작 이곳 고창 현지에서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나 싶다. 여러분은 세계무대에 당당히 여러 모로 이름을 알린 고창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4. 고창 고인돌의 현황

1) 숫자

고창 고인돌유적의 개황이라든가, 보존정비를 위한 지난한 과정, 그 가치, 나아가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앞선 발표들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므로, 실은 그 에다가 내가 보탬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로서는 무척이나 곤혹스럽기는 하다. 다만, 나는 현재의 고창고인돌이 차지하는 위치를 냉혹히 점검해야 하는 데서 고창 고인돌의 출발 논의선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본다.

비단 고창 고인돌만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곳곳을 맴도는 현상을 본다. 당장 1996년 문화재청장이 고창 고인돌유적을 포함해 세 지역 고인돌 유적을 한데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World Heritage Center 에 제출한 Koch'ang, Hwasun and Kanghwa Dolmen Sites 세계유산 등재신청서¹⁹⁾를 보면 이들 지역 고인돌묘가 지닌 가치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대목을 본다.

1. The Importance of Dolmen Sites

Dolmens are one of the remnants of a megalithic culture, which were thrived in the Bronze Age in the northeast Asia. Of the 50,000 identified dolmens in the world, 26,000 are concentrated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was indeed a major megalithic center.

In Europe dolmens emerged as early as the Neolithic. They flourished in Korea and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Bronze Age. The dolmen

19) 2019년 9월 현재, 세계유산센터에서 pdf 형태로 원문을 제공한다.

sites in Korea, encapsulating clues to the society, economy, culture, and religion of that prehistoric time, are a priceless inheritance that should be shared with the widest possible range of people. (밑줄 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이 대목을 항용 문화재 담당기자를 오래한 나 역시 언제나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전 세계에 걸쳐 5만기 정도를 헤아리는 고인돌 중 한반도에만 그 절반을 상회하는 2만6천기가 한반도에 집중한다 하거니와, 나는 도대체 저런 통계 수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혹 오늘의 발표자나 토론자, 나아가 플로어에 계신 분 중 저 통계치 출처가 어딘지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통계치가 비록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춘 것이라 해도, 과연 무엇을 dolmen으로 정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당장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거니와,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고인돌묘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저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dolmen이 인도라든가 동남아에도 제법 많은 숫자가 분포하거니와, 신통방통하게도 한반도 기준 저 반대편 유럽의 섬 나라 아일랜드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분포한다. 5만기, 2만6천기 하는 수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후의 공간만?

얼마 전 고창군이 호남문화재연구원이 의뢰해 실시한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실태조사용역』 보고서를 보니, 고인돌 유적을 포함하는 고창군 일대 청동기시대 ‘고고학적 환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음을 본다.

- 고창은 한반도 최대의 고인돌 밀집 지역이며, 특히 상갑리·죽림리 매산마을 일대는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석묘 447기를 포함하여 고창지역에는 205개 군집지역에 1,665의 지석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주로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래에 석교리Ⅱ 유적에서 2기, 오호리 신지매 유적에서 2기, 우평리 유적에서 2기, 울계리 유적에서 5기가 조사되었으며, 기존의 죽림리·남산리·예지리·우평리·산정리·성남리Ⅳ·삼인리·신덕리·교운리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

앞부분이 고창고인돌에 관한 정리이며, 뒷부분은 이들 고인돌이 조성되었을 같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성과의 요약이다. 이를 보면 고창 고인돌유적이 지닌 장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다간 고창 지역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남긴 무덤 흔적은 농밀한데 견주어, 정작 들이 터잡고 생전에 살았을 법한 주거 흔적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고창 고인돌 유적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들이 죽어 사는 무덤만 있고, 생전에 터전을 일군 흔적은 확인도 알 수도 없다? 뭔가 단단히 앞뒤가 바뀐 셈이다. 나아가 이는 고고학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고고학은 언제나 무덤 지향이었다. 태생 자체가 도굴과 궤를 같이하니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도 모른다.

근 20년래 한국고고학은 비약적인 양적 팽창을 이룩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강제 고고학 발굴조사 의무화는 청동기시대 문화상 구명에도 막대한 파급을 미쳐, 마을유적이라 해서, 전체 마을을 통째로 발굴조사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개발의 광풍이 고창에는 그다지 영향이 크지 않은 듯, 그런 까닭에 현재와 같은 유적이 그나마 지켜지는 발판을 마련했는지 모르겠거니와, 그러는 한편으로, 정작 저런 막대한 숫자에 달하는 거석巨石 기념물을 남긴 사람들과 집단 혹은 마을에 대한 흔적은 아직 흔적도 드러나지 않는다.

고인돌묘를 조성한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남긴 마을유적으로 근자 발굴된 대표적인 곳으로 춘천 중도유적을 들 수 있거니와, 북한강으로 절연한 이 하중도河中島를 레고랜드 놀이동산 건설에 즈음한 발굴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대략 100기에 달하는 고인돌묘와 1천여기를 헤아리는 같은 시대 주거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 생전 공간(주거지)과 사후공간(묘역)은 구역이 확실히 나뉘어졌음이 새삼스레 밝혀졌다.²⁰⁾ 중도유적 역시 그렇듯이, 다른 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 사례들을 볼 때도, 이 두 구역이 실은 인접한다는 사실도 미루어 짐작한다. 이로 보아 고창 고인돌묘를 남긴 사람들이 이루고 산 마을 또한 이 공동묘역 가까운 어느 지점, 아마도 이 묘역과 그 전면을 흐르는 고창천 사이 구릉지대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발굴조사가 시도된 흔적이 감지되지 아니하며, 설혹 있었다 해도 심각한 수준의 조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현재의 고창 고인돌유적은 저런 궁금증을 타개코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 적지 않은 돌무더기가 밀집했다 하지만, 그런 무덤만 덩그러니 드러난 마당에, 그네들이 정작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갈증이 없을 수는 없

20) 이 유적을 발굴조사한 5개 기관이 아직 정식 발굴조사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아, 통계는 어디까지나 대강치임을 밝힌다.

어, 이를 해결하고자 유적 공원 입구에다가 박물관을 세우고, 그 야외 공원이라는 것도 만들어 청동기시대 마을생활상이라 해서 보여주고자 안간힘을 쓴다.

3) 마스크트의 부재

같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고인돌유적 가운데 강화와 화순 지역은 각기 마스크트에 해당하는 ‘얼굴’이 있으니, 강화는 강화역사박물관 앞마당 그 드넓은 공간을 독차지하는 이른바 부근리 고인돌이 그것이요, 화순 고인돌유적이라면 평매바위가 있다. 강화 부근리 고인돌은 덮개돌 기준 길이 7.1m, 너비 5.5m에 50톤에 달한다는 돌무덤이라, 그 위압성이 여타 다른 곳 고인돌을 압도한다. 이 부근리 고인돌은 독패주의의 거봉巨峰이라 할 만한데, 주변에 같은 고인돌묘라 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아니하나, 주변 풍광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연출한다. 이는 그 양식을 볼 적에 이른바 탁자식 고인돌묘라 해서, 그 날렵한 몸매 혹은 경관성이 화순이나 고창과 같은 지역 고인돌묘들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국면이 있다.

그에 반해 화순 고인돌유적을 말할 때면 항용, 그 얼굴마담이 되는 평매바위는 그 육중함으로 여타 고인돌을 압도한다. 이 바위가 그 자체로 날렵성이나 경관성이 뛰어나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고깃덩어리 잘라낸 것과 같은 그 덩치가 덮개돌이긴 하나, 길이 7m에 높이 4m에 달하고 추정 무게는 200t을 헤아린다 하니, 그 육중함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그에 더해 더 한쪽 측면에는 ‘여흥민씨 세장산驪興閔氏世葬山’이라는 큼지막한 각자刻字까지 있어, 고인돌묘에서는 흔치 않게 그것이 재활용된 역사시대 흔적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작 삼국시대 석실묘 덮개돌 정도로 재활용된 여타 역사시대 재활용 고인돌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마스크트성을 더욱 높인다. 더불어 화순 고인돌유적에는 그 가시성이 뛰어난 채석장採石場까지 비교적 온전한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고인돌 제작과 관련한 흥미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도 한다.

그에 견주어 고창 고인돌은 우선 그것이 밀집한 상갑리·죽림리 매산마을 일대 묘역 뒷산 곳곳 암반이 고인돌을 조성하기 위한 채석 흔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다만, 그 흔적들의 가시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장 화순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으니, 요컨대 고창 고인돌유적의 채석장은 이른바 전문가 집단이나 관광해설사에 의한 “이곳이 채석장”이라는 부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마스크트라는 측면에서 고창 고인돌이라고 할 때 당장 무엇을 그 얼굴로

내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듣자니, 다름 아닌 이곳 고창 고인돌유적에 현재까지 파악된 가장 큰 규모의 무게 300t급 고인돌이 유적 공원 뒤편 운곡습지 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언젠가 찾아 나선 적이 있기는 하나, 수풀 속에 가려서 그 면모를 제대로 맞본 적이 없음을 말하고 싶다. 이 큰 고인돌이 됐건, 혹 다른 어떤 마뜩한 것을 개발하건, 나는 고창 고인돌이라고 할 적에, 그것을 강렬하게 각인케 하는 마스코트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4) 조경의 부재

이 조경 문제는 비단 이곳 고창 고인돌유적만의 문제가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관련 전문가 참여가 언제나 맨 마지막에 합류한다는 데 찾을 수 있으니, 나는 유적공원 개발에서 조경은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네 유적공원 조성 양상을 보면, 거개 공사가 입안되고 그에 따른 발굴조사단 선정과 실제 발굴조사, 그리고 해당 유적 처리를 둘러싼 전문가 회의와 문화재위원 심의, 그리고 문화재청 결정이라는 수순을 따르거니와, 내가 보고 들은 현장은 언제나 조경 전문가 참여는 이 모든 제반 결정이 이뤄진 다음, 이른바 해당 유적의 보존처리 때였다. 이는 구제발굴에 대비된 이른바 학술발굴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거니와, 그런 까닭에 유적 조사 과정에서 조경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는 주변 정비가 이뤄져, 정작 발굴이 끝난 다음, 그럴 듯한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현장을 본다. 그리하여 무수한 학술발굴 현장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잔디밭으로 변모하는가 하면, 잡풀더미가 되는 장면들을 목도하곤 한다.

고창 고인돌유적 공원 조성이 어떤 단계로 이뤄졌는지 나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이곳 역시 이러했으리라 보아 대과가 없다고 본다. 사정이 좀 나아졌다는 지금이 이러한데, 이곳이 한창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던 20년 전 사정은 안 봐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의 유적 정비란 고작 사유지 매입과 잡풀 혹은 수목 제거 수준이었으니, 그 구축 묘역이 원래는 마을이 있던 고창 고인돌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해당 고인돌들을 노출한다며 막상 묘역 일대 나무는 모조리 베어낸 모양인데, 그것이 고인돌들을 사람들 시야에 내놓는 일은 되었을지 모르나, 나는 이 묘역이 묘역으로 기능하던 청동기시대 그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면,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이태 전인가? 이곳에 잠시 들린 어느 가을, 묘역 곳곳 암반에 기대어 피어난 꽃무릇들이 그리 나한테는 인상적일 수 없었다. 나라고 무턱댄 꽃단지 조성

이 좋기야 하겠냐만 누구 아이디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절따라 이런 꽃을 심을 줄 아는 그 시도 자체를 높이 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고인돌묘 자체로 이곳 고창은 시각성에 다른 지역과는 현격한 약점을 노출한다. 이렇다 할 마스코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기만으로도 여타 밀집형 고인돌 집단묘역을 가시성에서 압도하는 강화 부근리 고인돌과는 달리, 그 양식상으로는 이른바 기반식이라 해서 엉거주춤형이라 좀체 그 자체만으로는 경관이 부족하기 짝이 없다. 물론 고인돌공원 서쪽 편 소나무 숲 사이로 놓인 고인돌들은 나름 정형성이랄까 하는 모습이 있어 일렬횡대를 이룬 모습이 가시성을 주기는 하지만, 여타 인상적인 장면을 포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흔히 고창 고인돌유적 특징으로 동서 방향 1.5km 구역 안에 400기 이상 거석이 가장 조밀한 분포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고인돌 분류 양식에 의하면, 이런 양상은 이른바 탁자식에서는 있기 힘든 현상인 반면, 기반식과 같은 양식에서 보이는 자주 보이는 전형이라 할 수 있으니, 이런 조밀도는 실은 경관성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한다. 그 대부분이 받침돌에다가 덮개돌을 얹은 형식이다. 이는 날렵함을 주는 탁자식에 비해 덮개돌이 두툼해지는 점이 특징이지만, 이것이 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는 돌덩이와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일로 작동한다.

그에 더해 고창 고인돌묘는 간헐적인 발굴도 이뤄졌으나, 부장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겨우 근처에서 마제석검 손잡이 파편 정도만 채집되는 상황이니, 이 시대 생활상 복원에도 적지 않은 애로를 유발한다. 이는 이들 고인돌 모두를 매장시설로 썼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은 결국 불품을 위해서는 인위가 가미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니와, 이에서 조경의 중요성이 대두한다. 경관landscape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그 무엇이라는 말 나는 자주 한다. 특히 문화재 현장에서 이 말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우리네 문화재현장에서는 비간섭주의를 채택하는 일이 적지 아니해서, 이런 흐름을 뭐랄까, 원본주의적 환경론이라고 할까 하는 흐름이 강고하다.

바뀌야 한다. 필요하다면 꽃무릇은 더 심어야 하며, 지나치게 유행을 탄다는 비난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핑크물리를 심기도 해야 한다. 그 선택이야 알아서들 할 문제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따르기 마련이다. 꽃을 심는다고, 나무를 심는다고 저 거대한 돌덩이들이 공중 부양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꾸며야 한다. 단장해야 한다.

5) 고지형 복원의 문제

고창 고인돌은 이른바 고인돌묘 분류에 의한다면 이른바 기반식 고인돌이 대부분이라, 이른바 납작이형이라 좀체 폼새가 나지 아니한다. 본래 그러했을 것이로대,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개중 또 상당수가 매몰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으로 치면 가뜩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 무르팍까지 모래에 매몰한 셈이다.

앞서 소개한 호남문화재연구원 조사 개황에서는 이 일대 지질 특징으로 다음을 거론한다.

고창지역의 지형적 특색인 높은 산지 지형, 또는 기복량이 큰 지형 및 기반암이 노출된 지형들은 주로 중생대 화산암류를 기반으로 함.

- 지금으로부터 약 6억년전에 고창이란 자연환경의 지반이 형성되었으며, 그 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조산활동과 퇴적작용 등에 의해 몇몇 단층들과 현재의 지형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고창군 지역의 쥐라기 화강암류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을 관입하고, 백악기 화산암체에 의해 관입 내지 피복되었는데, 후기 쥐라기 시대의 전단 운동과 연관되어 관입한 우리나라 최고기의 관입 화강암 복합체로 엽리상 반상 화강암, 흑운모 화강암 및 반상 화강암으로 구분.
- 고창읍에는 쥐라기 화강암류인 흑운모 화강암, 반상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생대 제4기 충적층들이 발달되었으며, 현재에도 크고 작은 하천들을 따라 충적층이 발달하고 있음.

이 충적층 발달 문제는 한반도에서는 비단 고창만의 문제가 아니거니와, 바로 이 점에서 고지형 복원 문제가 대두한다. 지금의 문화재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충격은 반대하나, 일정한 타격은 가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이런 점에서 호남문화재연구원 보고서가 제한한 ‘고지형분석’ 제안은 주목해도 좋다고 본다. 이미 기초 분석 결과 “산지와 곡저부, 미고지, 선상지성 지형, 구하도 및 하도 흔적이 보호구역내(구 농경지)에서 확인”했다고 했거니와,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미고지나 선상지성 지형은 밭 경작이나 취락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고, “곡저부, 구하도의 경우 논 경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 향후 “죽림리지석묘군 주변의 원지형 복구 및 당시 생산 시설이나 주거공간의 복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향후 조사에서 확인할지도 모르는 주거공간이나 논밭 등의 생산시설은 결국 야외박물관 기능을 대체할 것이다. 나아가 고지형 복원에서 고인돌묘 조성 당시 수준으로의 노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5. 고창 고인들의 미래

한때나마 한국관광공사에서 몸을 담은 나는 당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 중 하나가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요 “향후 산업 근간은 관광”이라는 말이었다. 그로부터 대략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을 얼마나 달라졌는가? 유감스럽게도 말뿐이었다. 관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당위의 구호만 난무할 뿐, 그를 위한 구체의 뒷받침과 무엇보다 그를 향한 국민 전반의 인식 전환은 맴돌이 수준이라 보아도 대과가 없다. 당장 여가문화라는 말만 해도, 이것이 언제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일도 간주되어, 공휴일 하나 만드는 일도 저들 이른바 경제계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하고는 만다.

저들한테 오직 경제 혹은 경제활동은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조립하고, 에어컨 만들어 수출하는 일만을 지칭한다. 여가 활동 그 자체가 경제활동이며, 그에서 그네들이 그토록이나 꿈꾸는 막대한 경제활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저들은 전연 인정치 아니한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일이 곧 경제활동이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각지를 돌며 그 막강한 아미Army라는 팬클럽 회원들을 동원하는 일이 경제활동 아니면 과연 무슨 개뻐다귀란 말인가? 이 7인조 젊은이가 움직이는 곳마다 자동차 수천대 수만대, 반도체 수만개가 쏟아진다. 게임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 수출액 8%를 차지한다는 통계치를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토록이나 소위 경제계가 경멸하는 ‘게임하며 빈둥거리는’ 일이 수십 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를 창출하는 일이 곧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활동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시급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문화활동을 모조리 관광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로대, 그 핵심이 관광 산업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관광, 이 고창이 향후 백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제1의 생업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고창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봉착한 문제로, 관광의 중요성을 습득한 곳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끼를 먹고 가게 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1박을 하는 관광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고창처럼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다양한 문화자산을 갖춘 곳은 전국에서도 드물다. 더구나 바다와 갯벌, 그에 더해 온천까지 낀 곳임에랴? 이런 고창이 고작 1끼 먹고 가는 관광을 부르짖을 수는 없지 아니한가? 더구나 세계 유산까지 보유한 고창이 아니던가?

고창 고인돌유적으로만 본다면, 이곳이 세계유산이기는 해도, 그 자체로는 현재 여러 사정상 1끼를 잡아두기에도 버거운 곳이다. 이는 앞서 이화중 선생이 소개한 그

세계적 유명세를 타는 영국의 스톤헨지라는 곳도 마찬가지라, 이곳 역시 언제나 관광객을 오래 머무르게 할 묘안이라며 각종 아이디어를 짜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줄로 안다. 거석기념물과 제법 떨어진 지점에다가 관람 안내소를 설치하고, 그곳에다가 현장전시관을 놓고, 그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만, 선돌 유적 하나만 덩그러한 그곳을 아무도 만나질 이상 머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선돌은 현장을 보호한답시며, 주변 원형 해자를 따라서 관람객은 접근도 하지 못하게 막아놨으니, 누가 현장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을 머물겠는가? 유리한 보호책 위주 정책은 내보기엔 처참하게 실패했다. 선돌 사이 길을 뚫고 지나며, 그에서 선돌에 기대어 사진도 찍게 하고 동영상도 찍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정작 관람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오래 머물러 달라? 그 거석기념물을 관람객이 뿔아라도 간단 말인가?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장과 유리하는 문화재 활용 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이곳 고인돌공원에서든 언제나 참조했으면 한다.